

Программа  
TV

8-9-10 стр.

"СРР"

12 стр.

"Такая интересная  
жизнь"

13 стр.

Субботный  
детектив

14 стр.

토요일  
суббота

23

Сентября  
9월 23일

1995

# 고려일보

1923년에 창간

Выходит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38(465)

Издается с 1923г.

## КОРЕ ИЛБО



한겨레

행복한 할머니

### 오늘의 지면:

- 3면 잊을수 없는 만남
- 4면 저렇게도 남의
- 5면 사장과의 인터뷰  
《다에포》회사 정태상

### 《겨울》시간으로 이행

공화국 내각의 1992년 1월 13일부 결정과 시간및주파수·축정의 단일성 보장에 관한 독립국연합체 국가들간 협정에 따라 9월 24일 새벽 3시부터 카자흐스탄영토에서 여름시간이 폐지되며 겨울시간이 작용한다. 이것은 시침을 뒤로 1시간 움직임으로써 실시된다.

(카즈따그)

###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정령 (법적 효력을 가졌음)

카자흐스탄공화국 헌법 제2조·제3조항,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과 지방행정당국 지도자들에게 임시로 추가적 전권을 부여함에 대한》1993년 12월 10일부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령 제1조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를 옮길 데 대한》1994년 7월 6일부 공화국 최고소베트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알마타시는 공화국국회와 정부가 아크몰라로 이주하기전까지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로 계속 남아 있다;
2. 최고및중앙 국가기관들을 아크몰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가위원회를 형성할 것이다.
3. 공화국 정부는 아크몰라시의 설비자금을 저축하기 위한

《새 수도》란 특별재단을 창립할 것이다. 아크몰라시 하부구조의 건축과 발전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관세 및 기타 특혜를 제공할 데 대한 제안들을 강구하여 대통령 심의에 붙일 것이다.

4. 본정령은 발표된 첫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알마타, 1995년 9월 15일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엔. 나자르바예프

### 김 아파나씨 그리고리에위츠 알마타시고려인민족중앙 회장으로 당선

지난 9월 15일 알마타시고려인민족중앙 총회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회의일정을 토의하기전 불의에 우리 곁을 떠난 전회장 황 미하일 와셀리에위츠를 추모하여 애도를 표하였다.

회의참집자들은 김 아파나씨 그리고리에위츠 (공화국 청년·관광·스포츠 차관)를 만장일치로 알마타시고려인민족중앙 회장으로 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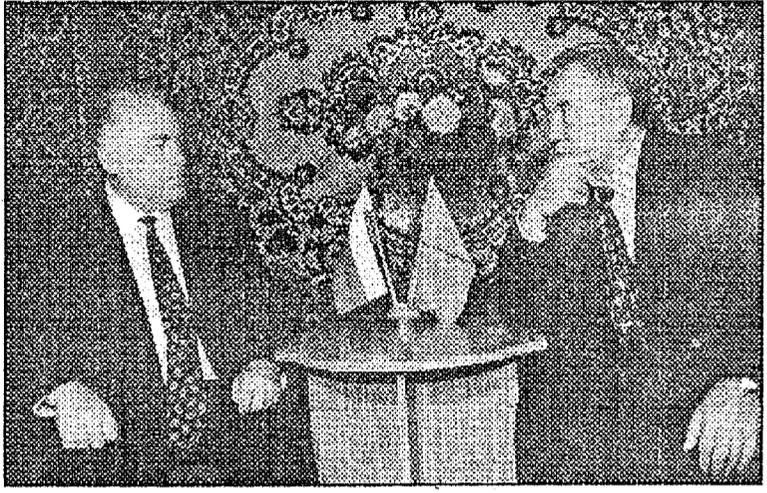
김 아파나씨 그리고리에위츠는 자기를 신임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민족중앙의 금후 예정과업으로서는 확고한 불철토대를 축성하며 고려인사회단체들, 연금생들과 장애자들에게 원조를 주는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이

## 독자여러분! 1996년도 《고려일보》를 구독하려면 1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독신청: 33-20-57  
광고접수: 33-22-71

구독료 12개월: 678-24  
6개월: 339-12  
3개월: 169-56



나자르바예브대통령은 서 카자흐스탄주 방문시에 그루 시야에서 우랄스크에 도착한 채르노비르진로씨야연방 총리와 회견했다. 회견과정에 그들은 양국상호유익한 협력을 금

카자흐스탄소식

서독국회의원그룹 까라간다 방문

까라간다. 서독국회의원그룹이 까라간다를 단기방문했다.

이 방문의 목적은 이곳에서 거주하고있는 독일인들의 현황을 알아보는데 있다. 손님들은 독일인문화중앙을 방문하였으며 주텔레라디오방송공사 기자들과도 회견했다.

귀빈들은 돌아가서 독일 이민들 특히 카자흐스탄에 남아 사는 독일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대기를 오염하지 않는 용광로

제즈카스간. 이곳 구리제련공장 제1호 용광로에서 재건사업이 시작됐다. 새 전기용해공정 도입에 관한 공률에 일련의 외국회사들이 참여했다. 설비 현대화에 관한 계약 주문을 스웨덴 《볼리덴 콘페카》회사가 받았으며 독일 《프레나》회사와 공화국의 전문화 기업소들이 그의 파트너로 되었다.

대나무도 자랄것이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전문가들과 학자그룹이 크즐오르다에 왔다. 일본학자들은 이곳에서 열매지를 이용함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게된다. 주에선 벌써 실험장을 정해놓았다. 이곳에서 일본학자들은 토양구조를 개정하고 민물을 대어 소금기를 씻어낼 예정이

당-국민투표를 반대

공산당과 중립당을 비롯해서 국민공진당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각이한 당 대표들은 지난 월요일 기르키시야 국회청사 앞에 규찰대를 세웠다. 정식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며 아스카르 아카예브 대통령의 권한을 2001년도까지 연기할데 대한 국민투표진행감빠

재진후 용광로는 세계규격에 부합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따라서 야금생산의 기술경제실적도 급격히 뛰여 오르게 되고 에네지소비량도 줄게 된다.

회사들은 공업가스 포착 수준도 한층 높아질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산 생산과 귀금속생산을 늘일 가능성 있는것이 아니라 폐흐들과 대기도 가스로 오염되자 않을것이다.

이르티스강을 걸치는 새 교량

세미발라진스크. 도교 콘살정연구소 실무그룹은 이곳 이르티스강을 걸치는 새로운 교량건설공사 기술경제적기초장구에 착수했다.

주소제지에 내도한 일본 전문가들은 벌써 이전 교량설계도를 연구한 다음 건설자들, 측지학자들, 수리학자들과 상담하였으며 앞으로 교량건설공사에 극히 필요한 철재구조물을 주문할 일련의 기업소들을 돌아보았다. 연발에 가선 기술기초안을 완성하며 다음해에는 설계안을 작성하고 1997년에는 대상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카즈따그)

니야를 중지하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요구이다. 국민투표를 반대하여 진출한 급진파들은 《에르킨 기르키스스탄》당 부위원장 모브추베크 푸르구날리예브와 함께 정치적단식운동을 광포했다.

(카즈따그)

쿠츠마우크라이나대통령의 공식방문

쿠츠마우크라이나대통령은 나자르바예브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20일 중석방문자로 알마타에 도착했다. 3일간 방

문시에 쿠츠마우크라이나대통령은 나자르바예브대통령과 회견을 갖고 과학, 예술 및 교육 부문에 관한 정부간 협정들을 조인했

다. 또한 그는 카자흐스탄, 기업기, 참전자 및 수도의 우크라이나인들과 만났다. (카즈따그)

10월 1일부터 최저노임과 최저연금 인상

정부에서 전한바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고있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정령에 시정과 보정을 가함에 대한》 1995년 7월 20일부 대통령 정령과 역시 법적효력을 갖고있는 《1995년도 공화국 예산에 대한》 1995년 3월 15일부

대통령의 정령에 따라 1995년 10월 1일부터 최저노임액과 최저연금액이 300명개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기업소, 기관과 단체 지도자들 우선 교육체계, 보전체계, 사회보험체계 등 기관 지도자들에게 10월 1일부터 직무노임과 전체 부류

의 일군들의 임금율을 인상할 권리를 준다. 노임과 연금의 새 인상은 해당기간에 공화국에서 조성된 인플레이션 수준과 직접 결부되었다. (카즈따그)

카자흐스탄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지지

카자흐스탄공화국 카심조마르트 도가예브 외무장관은 알마타에 래도한, 리인규 외무부상이 인솔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부 대표단과 회견하였다. 회견과정에 당국 외무성간의 접촉관계를 확대·심화할 가능성과 카자흐

스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상호유익한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가능성에 대한 말이 오갔다. 리인규 외무부상은 이런 협조는 더 폭넓게 발전하면서 당국의 리익에 복무하리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지역의 전체 나라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고 조선반도를 평화와 안정 지대로 전환시킴에 헌뜻 기여하려고 힘쓰고있다고 까. 도가예브는 강조했다. (카즈따그)

CIS 소식

아스하바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푸르크메니스탄을 공식방문했다. 양국 대통령은 파키스탄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따라 파키스탄에로의 가스도관-공동부설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견에서 로씨야와의 관계 정상화와 다각적 발전은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적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공화국의 현대외정책의 중요한 양상을 주해하면서 장관은,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에 있어서 정치나 경제적 측면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빌리시. 9월말에 가서 그루지야는 새민족화페-라리블 도입할것이다. 예비적 정보에 의하면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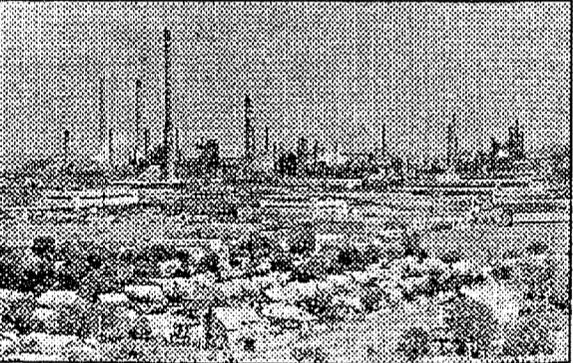
율로는 미화 1달러는 1,3라리가 될것이다. 1백만그루시아 꾸뽀를 1라리로 바꾸게 된다. 그로즈니. 현재 체첸공화국에서는 무장해체과정이 아주 늘어졌다고 그로즈니에서 평화유지 회담 로씨야 대표단 지도자 미하일로브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에 와서 무장전부대원들이 아니라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무기를 바치고 있다. 오늘까지 약 1500자투의 무기만을 바쳤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제미르따우시

반세기전에 자그마한 부락이 자리잡고 있던 곳에 첫 발목이 땅에 박혔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카자흐스탄중공업의 대기업체인 까라간다야금 콤비나트가 일떠섰다.



사진: 제미르따우시아금공대봉로의 전경.



까라간다야금콤비나트

중부카자흐스탄에서 새 곡창건설공사 준공

까라간다주 블로조즈니부락에서 미국기술공정이 설치된 곡창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3만톤의 용적을 가진 이 곡창 《엘레와포르》를 미국 《제르-타임 브로크》회사 전문가들의 참가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건설했다. 《제르-타임 브로크》회사는 세계수준에 부합되는 그런 최신설비를 엘레와포르에 설치했다. -엘레와פור는 완전히 자동화 되었는데 쉽게 또 재빨리 알곡을 요구되는 파라메

터까지 건조시켜 알곡보관실에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누르면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량의 알곡을 내줍니다. 엘레와포르의 모든 작업을 조종대에서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100명이상이 하던 일을 네명이 담당하게 됩니다-라고 회사 대변인 페리 토마스 스테데르는 말했다. 주행정당국 주지사 보드르 네포도브는 이 새 엘레와포르 개업식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기술공정의 높은 질과 지방건설자들 특히 까라간다

《페에까-1001》집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중요한 대상을 주내에서 주수가 한장일 때 준공시켰습니다. 우리 주는 농사하기 힘든 그런 지대에 놓여있으므로 정성을 들여 가꾸어 자래운 수확을 다 보전하는것이 아주 중대합니다. 이제는 그런 엘레와포르가 있으니 시름놓을수 있습니다-라고 페. 네포도브 주지사는 말했다. 웨. 고릴니즈끼

# 잊을수 없는 만남

지난 광복5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초청을 받고 남편과 함께 8·15경축절에 참가하게 된 열예를 저는 지냈다.

처음 조상땅을 밟게 되고 고국동포들의 다함없는 온정을 받아안게 된 우리들의 가슴은 더없이 설레이었다. 그것은 할아버지 이동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나는 전에 모르고있었으며 또 예상도 못했던 까닭에 더구나 그러했을것이다.

이동휘할아버지의 독자인 나의 아버지 이영일(아버지의 할아버지젠 딸 셋이 있었다)은 할아버지에 대한 자서전적소설을 썼는데 고고송무씨의 노력과 도움으로 서울에서 한국어로 책을 펴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에 대한 일부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

그런데 광복절에 서울 세종로광장에서 해외동포, 서울시민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들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한 예식은 그야말로 엄숙하였고 인상적이였다. 김영삼대통령이 친히 이동휘후손인 저에게 이 고상한 표창을 수여하시였다. 그리고 이튿날 대통령궁전에

서 광복회원, 해외동포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접견하셨는데 김영삼대통령과 영부인과의 접견은 실로 일생을 두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독립유공자 이동휘 선생의 손녀 이 류드밀라씨와 외손자 오도영씨가 지난 8월 12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만나 친족 상봉의 감격을 나눴다.

고 잊을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접견참가자들 모두가 김영삼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작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까지 크게 가지고 있다는것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심지어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까지도 이동휘에 대해서 우리 친척들

보다 더 많이 알고있었으며 계속 연구하고 있다. 서울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하와이섬에서 온 동포들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원고, 사진과 책을 우리에게 선사 해주었다. 독립기념관 방문시 나는 조선임시정부위원 그루빠들의 밀랍조각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 위원들중에 나의 할아버지 이동휘도 계시었다. 이 역사적인 인물들, 민족해방운동 열사들은 마치도 산사람들마냥 서있었으며 또 앉아있기도 하였다. 독립기

한 아버지에 대한 기사원고, 사진과 책을 우리에게 선사 해주었다. 독립기념관 방문시 나는 조선임시정부위원 그루빠들의 밀랍조각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 위원들중에 나의 할아버지 이동휘도 계시었다. 이 역사적인 인물들, 민족해방운동 열사들은 마치도 산사람들마냥 서있었으며 또 앉아있기도 하였다. 독립기

념관에서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보게 된것은 매우 기쁘고도 감격적인 일이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것은 서울에서 사촌 오빠를 만나게 된 사실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외손자 오도영이다. 우리 아버지나 친척들중 그 누구도 할아버지 딸들의 운명을 모르고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줄이야 꿈엔들 상상했으랴! 오도영씨는 상해에서 왔다. 우리는 그와 함께 종친회에 초대되어 이동휘의 후손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종친회에서는 우리에게 족보를 선물로 주었다. 그들은 우리의 증조할아버지 이승주와 두 아주머니 의순과 인순이가 한때 민족해방운동에서 공훈을 세워 정부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얘기하였다.

서울시민들 특히 종친회원들이 우리에게 돌려준 커다란 관심과 신망, 그리고 한없는 그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눌수 없던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버지는 자기고향을 다녀오는것이 평생 소원이였다.

조국의 고상한 표창을 수여하고 따뜻한 배려를 돌려준 분들의 고마움을 가슴에 안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류드밀라

## 해외동포 지도급 인사 대거 고국방문

해외동포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고국을 방문했다.

지난 8월 11일-18일까지 펼쳐진 《95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을 찾은 이들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옛 소련의 과학자와 정치가들로 카자흐스탄 최고의 물리학자인 박 페르게이씨(62세·카자흐스탄 인민종합대학 교수), 로씨야의 현역 육군소장 차 블라지미르(49세), 카자흐스탄 민족정책위원장 김 게오르기씨의 부인 김 따찌야나씨(42세) 등 50여명에 달했다.

그중 로씨야의 친북한 최고 실권자인 허진의 아들 허가이 이고르씨(49세)는 친북인사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에서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또 지난 5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때 수행했던 한 구리브리소프씨(64세·고려인문화센터 회장)는 현 대통령의 고문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동포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박재주씨(54세·국가과학 기술위원회), 미국하원의원 김창준의원(56세), 독립유공자 편강 의사의 아들 편충무씨(56세), 캐나다의 양용진씨(64세·토론토의대 교수), 불가리아의 최동준씨(60세·공학박사) 등이 이번에 고국을 방문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고국방문에서 학술·문화행사와 통일토론회, 민속경기 등에 각각 참가해 《한민족 세계화》에 조인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고국소식》

## 카자흐스탄민족연합회 원탁회의

시청의 관료적인 태도로 인하여 오늘도 조선극장 건설 문제는 허공에 떠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원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카자흐스탄 민족연합회 지도부와 공화국 민족문화중앙 회장들이 참여했었다.

그날 일정은 이미 정해졌으나 회의 참가자들은 다른 난문제들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민족연합회 부회장인 바벨 아르투스게위츠는 회의를 열면서 우선 대통령의 명의로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두번의 국민투표를 진행함에 큰 기여를 한데 대하여 민족연합회 열성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예를 들어 연합회 회원들은 새 헌법 초안을 해석하려고 공화국의 각주에 다녀왔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국가민족정책의 개념이 강구되고 있다는 보도를 만족스럽게 감수했다. 앞으로 몇개의 이론회의가 예견되었는데 그중 민족간관계문제에 대한 회의가 내달에 알마타에서 진행될것이다. 이 회의에 40여명의 외국전문가들이 초청되었

다. 원탁회의에서는 민족연합회의 할당수에 의해 2682명이 카자흐스탄 대학들에 입학했다고 지적되었었다.

로씨야인공동체 지도자는 많은 로씨야인 청년들이 마치 할당수로 인해 대학입학에 거절을 받았다고 비평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올해 합격된 거의 전체 로씨야인 청년들이 대학에 붙었다는 해명을 받았다.

회의에서 민족연합이사회 회원인 한 구리교수가 카자흐스탄교포들에 대한 문제, 그들의 정치적 명예회복, 문화재생에 대해 말했다. 그는 국립조선극장을 짓기 위한 땅을 알마타에 떼어준다는 원칙적인 허락이 있으며 설계도, 자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관료적인 태도로 인하여 오늘도 이 문제는 허공에 떠있다고 비평했다. 그날 회의에서 독일, 우이구르, 푸르드, 유대인 민족문화중앙 지도자들도 역시 자기문화중앙의 난문제에 대해 말했다.

본사기자

## 형사 사건

허가증 없이 사무를 보다가...

악쭈빈스크 법보호기관 일군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지 상업회사 《찬스》지도자들이 자기 예금자들에게 끼친 손해는 50만달러, 5억뎡가와 10억 로씨야 루블리에 해당 하한다.

내무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회사 지도부가 범한 사기행위 총진수는 100건을 능가한다. 《찬스》회사는 주민들의 예금을 접수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없이 사업한 죄로 기소되었다. 법보호기관 일군들은 예금자들사이에서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비적 자료에 따르면 일부 예금자들은 자기가 실지로 버는 돈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돈에 대금의 이자를 붙여 예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무서 지도부의 의견으로는 많은 예금자들은 세금을 떼우지 않으려고 감춰둔 돈일 수도 있단다. 그러나 불분지 못한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생을 벌여 모은 돈일 수도 있잖는가.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누구 좋은 일 시켰는가에 대해선 말할 필요가 없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꼬쓰마나이에서 강파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이 강파들이 범한 범죄건수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살인사건도 틀어있다.

소개인기업소 《피오니트》라는 간판을 내걸은 이 대담한 강파는 한 은행에서 거액의 신용대부금을 받은 것으로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차츰간이 커진 그들은 중범을 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약탈하고 자동차도 훔아가곤 했다.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자 강파는 15세의 처녀를 잔인하게 죽였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과 같이 끝내 그들은 불잡히고

말았다. 주재관은 강파 두목 포민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다른 강파들에게는 다년간의 형기 언도를 내렸다.

마취제 중독자 수는 날로 불어난다

도르가이주의 한 구역 사실이 이에 대해 잘 말해준다.

한 내무장교가 지적한바에 의하면 지난해 온 해를 통해 마취제를 압수한 사실이 15번이었는데 금년 반년만에 만해도 벌써 이런 사실 14번이 등록되었다. 3명 즉 부라인, 오롤로위츠, 가웨린이 형사책임에 추궁되었다.

예셀 시민 B.에게서는 1550그램의 가시스와 59,3그램의 마리후아나를, 삿블로다르-모스크와형 열차에서는 한 외국공민에게서 가시스 574그램을 몰수했다. 시민들뿐 아니라 농촌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취제중독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집단적 농업기업소 《크라씨윈스끼》에 일하는 P.의 집에서 마취제를 찾아냈다.

내무부 보도센터

부문이 가장 번창하던 때는 1990년도였다. 그 해에는 공화국이 소비하는 전력의 대부분이 공화국에서 생산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국산과 외국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의 균등은 82-84와 16-18%에 해당하나 전력소비량은 20-25%나 줄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연료가 부족되고 설비들의 기술적 수준이 낮은데 있다. 올해에는 형편이 얼마간 나아져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전력의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기바쓰푸스 국영지방 발전소-1에서 일어난 파손은 부문사업에 큰 타격을 가했다. 한 블록의 지붕이 무너졌는데 파손수리 작업도 이전 능력 (1994년전까지는 228억킬로와트시, 1994년에는 86억킬로와트시)의 50%밖에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전능력을 보장하자면 대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에 4천만 달러의 비용이 요구되는바 그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다.

난방기가 임박해오고 있는데 연료를 아직은 불충분히 저장해 놓았다. 9월 12일 현재 물어 줄돈이 없어서 오직 48%의 석탄만을 공급받았다. 까라간다와 예기바쓰푸스 석탄도 돈이 없어서 못사들이고 있다. 전력 소비자들이 부문앞에 진 빚이 11억 1천5백만달러나 되며 부문 자체도 설비값을 치뤄주자면 10억여달러나 요구된다. 돈과 설비가 모자라서 예기바쓰푸스 석탄을

어치나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 수도를 연료로 보장하자면 2억5천만달러 (이것은 시정이진 빚 총액의 10%에 해당함)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거액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동력공업의 용자체계는

호감을 주는 그런 내외모를 띠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으며 우리는 또한 수입을 받을 조건도 지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미남자들로 하여금 빚을 물도록 하기 위해 임

보고 싶다. 현재 동력및석탄공업성은 10월 초하루부터 지역별전력 소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계에서 공급받는 전력을 쓰는 기업소와 주민들은 자국 산 전력을 쓰는 자들보다 전기세를 더 많이 물게 된다》. 1996년 제1·사분기부터 부문은 자체봉사제에 이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은 부문은 기업소를 대수리하는데 돈 한푼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어 장관은 《우리는 서방나라들에서보다 전력을 너무나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다. 우리 사람들은 전력을 절약할 줄 모른다. 그러니 서방 나라들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에 성은 일련의 빚들을 《동결》할 예정이다. 그러니 채무자들이 금년 11월 10일까지 모든 빚들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들을 제외하고서는 전기를 끊어버릴 것이다. 지금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막대한 전력적 소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빚을 갚을 형편이 못되거든 광물불을 켜가며 살아보라지》라고 끝으로 장관은 말했다. 강 알렉산드라

# 저렇게도 남의 사정을 몰라 존담?

얼마전에 카자흐스탄공화국 동력및석탄공업성 웨. 웨. 흐라부노브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문에서 조성된 현황과 전망발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실어내는데서 난문제가 생겼다. 올 동상에는 차량에서 직접 실어와서 매게 될까봐 장관은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면 예기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날이면 큰 일이 나기 때문이다. 웨. 흐라부노브 장관은 1994년 2월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연료를 적재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주행정당국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오늘 현재 주들이 부문앞에 진 빚이 100억달러어치나 된다. 알마타에서만도 25억달러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만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에게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동력공업은 대투자를 요하는 부문이다. 우리에게 투자자들과 회계할 두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로는 투자자들이 20-25년간 기업소 경영권을 갖고 수입을 받아가면서 경영하다가 기한이 지나면 이 기업소를 카자흐스탄에 되돌려 주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업소를 주식화하는 그것이다. 이 두 형태를 성과적으로 실천에 옮기자면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대상들을

물을 50%나 낮췄는데도 이 가능성을 이용한 자는 벗어안된다. 결과 기대했던 200억내지 250억달러 대신 오직 40억달러만을 빚받이하였다. 미남자들 가운데서 거액의 빚을 걸머진 예산이 첫 자리, 다음 170억달러나 빚을 진 농업성이 둘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성은 파종기가 끝나면 보자하는가 하면 추수가 임박해 왔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기가 일쑤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존중하는 농업성 자니베크 카립자노브에게 《남의 사정을 그렇게도 몰라 주는가?》고 물어

## 흥작으로 인한 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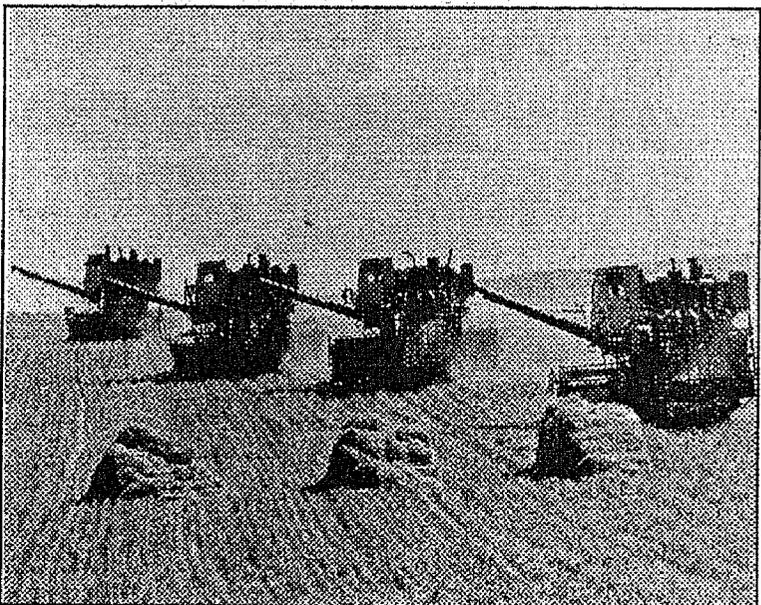
공화국 농업성의 기동자료에 의하면 9월 16일 현재 파종지 79%에 해당하는 1340만 헥타의 지단에서 탈곡하였다. 780만톤을 탈곡했는데 이것은 헥타당 평균 5.8센트네르씩 수확한셈이다.

동카자흐스탄주에서 가장 높은 수확고를 보장하고있다. 여기에서는 헥타당 알곡 13센트네르씩, 남부지역에선 7내지 8.9센트네르씩 수확하고있다. 쾰세따우주에선 헥타당 8.2센트네르씩, 북카자흐스탄주에선 8.1센트네르씩, 다른 주들에서는 그보다도 더 적게 수확하고 있다. 공화국의 기본 곡장인 꼬쓰타나이주에선 헥타당 알곡 4.3센트네르씩밖에 수확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하면 올해에 카자흐스탄은 홀레브의 부족을 질실히 느끼게 될것이라고 본다.

예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현재한 부분의 알곡과종지를 말소한것과 최근에 헥타당 6.5센트네르씩밖에 수확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타산한다면 총수확량은 1000만톤밖에 되지않을것이다.

결과 알마타, 악췌빈스크, 서카자흐스탄, 제즈카스간과 까라간다 주들을 비롯해서 다수 주들이 알곡으로 자급되지 못할 형편이다. 이것이 첫째로 둘째로는 이에서 연료유통유기계와 그의 부품 값을 치루어 주어야하고 씨앗과 농후사료용 알곡도 저장해둬야하고 농부들에게 현물지불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것이란 얼마되지않는데 그것으로 카자흐스탄 주민들에게 홀레브제품을 부단히 공급해 줄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웨. 나우모브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과 연관된 지역중에 우스또베만큼 고려인들의 정기가 서려있고 생활터전이었던 지역도 드물다. 38년 강제이주 첫 정착지의 한 곳일 뿐만 아니라 우스또베 경제가 팽창기 일때는 고려인이 주동이 되어 20여개의 콤포즈, 콤포즈들이 들어서서 카자흐스탄농산물 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불황의 악순환이 우스또베에도 미쳐 지금은 병들어 허허벌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지역 특성으로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농사자금과 농기계 부품 부족으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줄인 것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 것이다. 실상 가상으로 몇년째 생산비도 건질수 없는 농산물가격은 재배 면적을 더욱 축소시켜 이제는 경지면적의 20%내지 30%만이 경작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렵게 생산된 농산물도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재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년 겨울은 난방비마저 석탄기준으로 3만 명거나 된다. 하루 풀값 100 명개. 한겨울을 지낼수 있는 난방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수다. 그래서 사막지대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짐주위 몇십년 가로수들을 땀감으로 배어쓰는 사람들도 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농장 발전에 전력을 쏟았던 율 배르게이는 작금의 실정에 한숨만 짓는다. 옛날과 달리

국가 보조를 받을수 없기때문에 농작물 재배에 실패하면 다음해에 농사 지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윤선생님 개인농장 김선녀 콤포즈도 올해 농작물 재배에 실패하여 문을 닫을 형편이다. 자신이 젊었을때 농장장으로 일하면서 성장시킨 자신의 본신과 같은 농장이 문을 닫을 위기지만 현재 처지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이렇듯 문을 닫는 농장이 절반을 넘어섰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장도 재배면적이 경리면적 기준의 50%도 채 못된다.

## 금년 겨울이 유난히 추울것 같다

이런 현상은 우리 고려인이 많이 살고있는 우스또베 문제만이 아니라 전카자흐스탄 농촌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농업국가 카자흐스탄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모른다. 현실은 계속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암담하고 우울할수록 현실을 벗어날수 있는 원동력과 다가올 미래의 믿겨

를이 될수 있는 신명나는 일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신명나는 일이 당분간은 우리를 반긴것 같지 않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부 관리들 뇌물수수 사건과 일부 사회지도층 직권남용 사건들은 오늘의 카자흐스탄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는 뱀뱀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벗어날수 없는데 근시안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이 망하면 자신도 더불어 망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전쟁만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제불황은 사회 곳곳에서 불안한 야기시켜 국가의 존망에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는 소멸된 뒤 운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 현재보다도 더 나은 다시 찾을수 있는 소조직이 아니고 자신의 생사와 함께 해야 할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전인민이 지혜를 모아 사심없는 마음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물론 이곳에 뿌리내린 우리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난국 타개에 일조하는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인민의 지혜로 난국을 타개하면 유난히 추웠던 금년 겨울은 시원이 아니라 추위가 될것이다.

본사기자

# 《대우전자》: 높은 질과 미적인 최신키술 제품



한국 여러 대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우그룹도 최근 몇년간 카자흐스탄을 비롯, 구소련 여러 신생독립국가들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지국 이익에 직종시켜 자기 사업을 벌리고 구매자들의 각이한 취미에 맞는 현대적이고 질높은 제품을 생산함을 자기 사업의 원칙으로 삼으므로써 온세계에서 호평을 받고있으며 믿음성있는 상대자로 인정받고있다. 얼마전에 스위스에서 진행된 주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은 세계의 10개 가장 우수한 회사들의 하나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본사 배경이거자는 한국-카자흐스탄 합작회사 《다에코》정탁상사장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정사장은 벌써 2년째 《다에코》 합작회사를 지도하고 계시는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하에서 귀 합작회사가 창설되었으며 그동안 양측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사장: 어떤 나라건 모두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있습니다. 여기 카자흐스탄에서도 우리는 현지의 실정을 옹게 파악, 이해하고 그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우리 기본원칙이며 사업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와있는 우리 회사 사원들은 모두 가족까지 거느리고 와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도 짧은기간내에 최대한 자기 이익을 추궁하려는 임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선의적인 입장에서 이 나라 경제개혁과

국민생활향상, 날카로운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자기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우리 의향을 잘 말해주고 있을것입니다.

《다에코》 카자흐스탄 측 우리 파트너는 알마타 라디오 기술공장인데 합작회사를 창설할 때 카자흐스탄측은 규약 기금으로 100만달라를 지불했고 우리 대우전자는 4백만달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합작회사의 이윤분량이 똑같이 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측은 오래감아 나머지 3백만달라를 보증 지불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있으면서도 카자흐스탄측이 이런 결정을 채택한것은 우리를 믿어준다는것과 그리고 생산범위와 제품종류를 무단히 확장시키려는 쌍방의 지향성과 전망성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현재 귀회사가 하고있는 일과 가까운 앞날에 하려는 일은 어떤것입니까?

정사장: 지금은 주로 한국에서 보내오는 세분품조로 여기에서 TV를 조립하며 판매하는 일과 우리 회사 제품들인 기타 여러가지 가정용전 제품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현지 원자재와 한국의 높은 기술공정을 이용하여 여기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할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일 자리를 많이 이 나라에 만들어 줄수 있고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주며 현대적인 생산방법을 가르쳐줄수 있기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잘 팔리고있는 칼라TV와 비디오를 조립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흡진기, 기타 여러가지 가정용전제품 생산을 확장할 예정인데 그를 위해 지금 공장건설을 찾아보고 있는중입니다.

특히 말하고싶은 것은 여기 카자흐스탄에는 아직 세금 제도가 완성되어있지 않고 확

실한 경제법칙도 없어 현지에서 제품을 만드는것이 아주 불리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세분품조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조립, 생산하는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우그룹의 전반적 사업범위에 대해 간단히나마 말씀해주십시오.

정사장: 대우그룹에는 건설사업, 철도및항공운수수단 생산사업, 발전소건설, 통신, 전자제품생산사업, 각종가정용전 제품 등 28개의 생산부문과 상업망이 망라되어 있으며 세계 제1위적 대기업체들과 경쟁할수 있는 다부문기업체입니다.

우리 대우전자 회사는 일정한 의미에서 자립적인 회사이며 자기 자체의 자립적 발전기획에 기초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에 속하는 각부문 기업소들은 세계 132개나라들에 진출하여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종합대학도 갖고있는데 이 종합대학에서 자체에게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해있는 《다에코》합작회사는 절대로 민족성이나 친척 관계, 안면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질적 기능과 실무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 쓰고있습니다. 우리 집단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민족대표들이 동등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중 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 알마타 한국교육원에 보내여 공부를 하게 합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자기 지식을 더 넓힐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양국간의 협조관계 태두리 안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로온 장기적 협조

이것이 우리 회사 사업의 기본목적과 원칙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금 자동차공장 건설이 끝나가고 있고 가정용전제품조립공장이 가동하고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재 조업하고있는 것 외에 앞으로 현대적 기술공정에 의한 전지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가서는 TV 백만개와 5만개의 비디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 합작회사는 여기, 현지에서 20%까지의 각종 부분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품의 높은 질을 보장할 것이며 회사운영도 더 드팀없이 하게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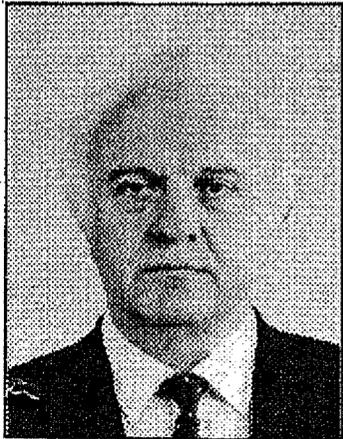
현지 원자재 이용은 아직 원만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TV통제조를 위한 악다우 폴리스티롤과 포장자료로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제품품종을 많이 확장할 예산인데 계획대로 일이 재대로 되면 약 1200명의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대우, 삼성, 기타 한국 대기업체들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도 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앞에 시위해주는 회사들이기때문이다.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는 그 회사들의 부단한 번영, 발전을 기원하는바이다.

정탁상사장은 금년에 우리 《고려일보》사를 위해 광고비로 15만달러를 후원해주었고 TV한대를 선사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기회를 이용해 정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것을 바라는바이다.

## 정치와 스포츠는 양립할 수 있다

필자는 정치 거성들은 스포츠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선 전혀 알리지 않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인물들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공화국 대통령 누르숄탄 나자르바예브와 로씨야연방대통령 보리스 엘친이 바로 그

런 인물들이다. 이 두 대통령은 정구애호가이다. 그러나 레닌, 재르진스끼 등 정치 거성들도, 스포츠 애호가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인 에두아르드 새와르드나제 그무지야 대통령은 의료 체조를 펴 즐겨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소련의 정치 거성들 가운데서는 의료체조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레닌, 재르진스끼, 부존니, 와실렙스끼, 셉로코브, 돌기흐, 쏘노마로브, 안드로보브, 고르바초브도 의료체조 애호가였다.

한때 게오르기 슈코브 소련원수는 줄도 (인솔트)와 만신마비로 인해 손발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었다. 그러나 슈코브만은 자기 병에 저버리지 않고 매일과 같이 한시간반씩 신체를 움직여 굳어진 근육을 풀기도 하고 1키로미터 구간을 보행했었다. 이런 방도로

게오르기 슈코브 소련원수는 재 병을 고쳤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게오르기 슈코브는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기력이 좋았었다. 그러나 다른 리



드들 특히 레오니드 브레즈네브에 대해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레오니드 브레즈네브는 아침체조를 하는 것을 전혀 싫어했기 때문에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은 인물이다.

마 안나

## 인접국과의 무역금지는 노력에 비한 공을 적게한다

공화국 내각 제1부총리 니그마트잔 이센가린은 누르숄탄 나자르바예브대통령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식방문총화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니그마트잔 까바타에워초도 카자흐스탄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까라간다 야금공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매달》프로그램을 실현함에 있어 폭넓게 협조할데 대한 카자흐스탄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정부협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1부총리는 이것은 중국측이 강철주입 재진 의안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웃 중국은 다량의 금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 국경부근에 위치한 우리 야금기업소의 지반발전엔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측은 《포스포브》, 《트랙터》 등 기타 프로그램을 실현하는데도 중국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제안도 지지했다. 우리 시장에 흘러들어

온 중국 상품의 질이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있다. 그래서 회담과정에는 바로 이 문제가 나섰었다. 회담과정에는 또한 상품의 질을 쌍방적 통제하에 두자는 협정안도 심의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협정을 실현함에 있어 난점들이 너무 많아 이 문헌 조인 기한을 연기하게 되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우리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식품이라든가 일상용품들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것들이 아니라 개인가내수공업자들이 생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즈타그)

장편대하소설

테산 산맥

백한이

제3부

(전호에서 계속)  
 《꽃잎이 아니고 소태가  
 물었겠지요》  
 《소태라도 좋으니 한번  
 안아봅시다》  
 김환성 노인은 거센 품으  
 로 송월 선생을 덩싹 안았다.  
 송월 선생이 기겁을 하며 외  
 하면서  
 《이 영감이 미쳤나?》  
 《그래 내가 미쳤다. 어쩔  
 래...》  
 김환성 영감이 쫓아가는  
 슬래잡기가 시작되었다. 고희  
 가 지난 그분들, 남의 생명을  
 이어가는 어른들이 철부지 어  
 린애들처럼 산길을 오면서 장  
 난을 하는데 누가 보면 영락  
 없이 미친 사람이라 하리라.  
 그러나 두 어른을 두고  
 평생에 처음 보는 자연 그대  
 로의 모습이 명희에게는 눈물  
 접도록 감사했다. 비록 고향에  
 서 부모님의 증신도 못한 불  
 효막심한 자신이지만 아버지  
 처럼 모시는 두 어른께서 저  
 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명희의  
 가슴에 뿌듯한 행복 같은 것  
 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께서  
 재미있나 봐요》  
 《얼마나 적조하고 단조로  
 운 삶이었나? 내가 네 친구들과  
 뛰노는 것처럼 할아버지들  
 께서도 그렇게 지내고 싶으시  
 단다》  
 《두 분이 싸우는 줄 알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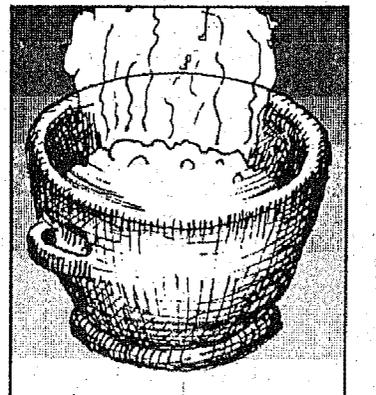
는데...》  
 《싸움도 하시지-》  
 《그럼 우리들하고 꼭 같  
 으네요?》  
 《똑 같은 옛날 생각하시  
 는 거야》  
 《아버지는 옛날 생각 안  
 나세요?》  
 《왜 나지. 엄마하고 여기  
 서 밭을 일구던 생각 나지, 감  
 자꽃이 새하얗게 핀 달밤에  
 엄마와 여기를 오면 어찌나  
 휘영청 달이 밝은지, 엄마와  
 아버가 기둥잡기를 하면 여우  
 가 꼬리를 살살 치면서 유혹  
 을 하는가 하면 늑대가 《어흥  
 어흥 울었지》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나도 아빠하고 있으면  
 안 무섭겠다》  
 《그래 아빠도 친하하고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  
 명희는 혜인과 도망쳐 갔  
 은 밤에 이 길을 넘어가던 생  
 각들이 실제처럼 떠올랐다. 뛰  
 어가는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길을 인도하던 맹수, 그리고  
 담담하던 혜인, 명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조금 전에 혜  
 인에게 죄스럽다는 생각이 혜  
 인의 상상과 이상을 모독하는  
 위선의 생각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혜인은 편히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들의 멸시와 어머니의 걱정을  
 들으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것이다. 혜인의 그 깊은  
 뜻은 이 세상 누구보다 명희  
 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명  
 희는 혜인의 이상과 진실을  
 모독할 뻔했다.  
 명희는 비로소 깨닫는다.  
 연민과 사랑은 그런 것이 아  
 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육체  
 적 최상의 만족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이  
 라 할 수 없다. 그것은 한 인  
 간의 이상과 꿈을 무시한 체  
 내일이 없는 슬픈 영혼으로  
 유인하면서 현실적 육감의 즐  
 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혜인은 욕되게 잘  
 살기보다는 지옥의 나락에서  
 살 지라도 하늘 우러러 떳떳  
 하게 살고 싶어 했다. 그러한  
 혜인의 참뜻을 명희가 모른다  
 면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명희는 한때 혜인과 질곡  
 의 밭길을 걸을 때 도깨비불  
 이 춤추던 어느 지점을 지나  
 면서 자신을 꾸짖으며 고개속  
 여 걸었다. 명희와 동행하  
 지 않았다면 혜인은 행복했으  
 리란 순간의 생각이 어디까지  
 나 명희의 아전인수의 자기  
 합리화라 판단하고, 결코 혜인  
 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가 바라는 사람답게 살아가

는데 그 길에 지팡이라도 되  
 어주는 것이라 다짐하면서 하  
 늘을 우러러 보았다. 거기엔  
 나뭇가지 사이로 빛부서 바라  
 볼 수 없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 맞았어! 내가 아직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는 저  
 햇살이 너무 빛나고 있어!》  
 명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주 가볍게 팔을 휘저으며  
 앞서 가던 송월 선생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다고,  
 애써 삶을 위장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자연이  
 사람들이 물구나무로 앉거나  
 서거나 또 어떤 형태를 갖기  
 를 바랬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요. 그  
 령지 않다는 것은 바로 자연  
 을 따르라는 것이요, 자연과  
 어떠한 갈등이나 충돌을 만들  
 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단지  
 자연을 따르기만 하면 곧 깊  
 은 침묵은 바로 그대가 평범  
 해질 때 찾아 올 것이요》  
 명희는 느닷없이 왜 송월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지금 명희  
 자신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답처럼 들렸다.  
 《선생님! 위대함을 자연  
 의 삶, 그 평범한 것에서 부여  
 하는 가치 기준이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는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  
 는지 꿰뚫어 보고 계신 듯하  
 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것도 아니  
 고 인간은 누구나 자연과 더  
 붙어 평범 해져야 한다는 평  
 소의 내 생각일 뿐이야》  
 《예수가 그의 친구들과 저  
 녁을 들고 있는 만찬의 장면  
 을 보리수 밑에 정좌한 석가  
 보다 평범해 보이는 것은 자  
 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예수가 그의 친구  
 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들  
 고 있는 평범한 모습은 아름  
 답게 보이는 몸가짐이지만 그  
 것은 이미 화가로부터 의도된  
 작품에 불과하나 많은 사람들  
 에게 공감을 주는 것만은 틀  
 림없는 일이지.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정좌한 모습보다는 예  
 수는 단지 평범한 느낌을 주  
 는 것은 마구간에서 해산했다  
 는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충분  
 하지 않은가.》  
 그러나 석가는 보리수 밑  
 에서 왕이 되었고 태어난 것  
 도 예외적으로 특별하지. 석가  
 는 보리수 밑에서도 거지가  
 아니었으며 왕자로 태어난 것  
 도 바로 그것을 말하지요. 그  
 래서 나는 부처보다 십자가가  
 더 로고스에 가깝다고 느낄때  
 가 있지요. 말하자면 석가보다  
 예수가 더 인간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화로**



온돌방과 화로.  
 춥고 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우리 겨레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난방 장치와 기구였다.  
 좌식 생활을 해 온 우리  
 겨레에게 화로는 곧 방의 온  
 기를 유지해 주는 정의 용기  
 로써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끼니 때마다 부녀자들은  
 화로에 잿불을 소중히 담아  
 놓았다. 화로가 없는 방은 무  
 언지 서운하고 썰렁했다.

방문 밖에서 눈보라가 몰  
 아치는 한국의 겨울밤. 천지도  
 분간할 수 없이 밀려같이 눈  
 발이 내릴 때, 온돌방의 화로  
 가에 둘러 앉아 옛날 이야기  
 를 나누는 정경이야말로 겨울  
 밤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재  
 미이다.  
 화로 속에 고구마나 밤을  
 물어 놓고 우리네 강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영위해  
 왔던 선조들. 피 많고 구수하  
 고 또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꽃피우며 겨울밤을 지내 왔다.  
 화로에서 꽃피던 이야  
 기 속에는 한국의 인정과 지  
 혜와 강산의 아름다움이 끝없  
 이 펼쳐지며 듣는 이의 가슴  
 을 훈훈히 적셔 놓았다.  
 진화로엔 잿불이 담기고,  
 부손이 꽃혀 있다. 할아버지는  
 장죽으로 잿불을 헤치면서 담  
 배불을 불이신다.  
 겨울의 한랭한 날씨와 살  
 을 에는 추위를 녹여 주는 용  
 기로서 화로는 가정의 필수품  
 이었다.  
 진화로를 바라보면 잿불

의 다정함이 전해 와 절로 마  
 음이 훈훈해짐을 느낀다.  
 화로를 보면 선조들의 손  
 길, 담배 연기 자욱한 방안  
 에서 꽃피던 민중의 질박한 이  
 야기, 주름살 사이로 퍼지는  
 웃음, 궁둥이에 전해 오는 온  
 돌방의 따뜻함과 문풍지를 울  
 리는 스산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잿속의 불씨처럼 우  
 리의 가슴 어디에 오래도록  
 깊이 감추어 두었던 애기들을  
 꼬집어내는 듯한 친밀감을 느  
 끼게 된다.  
 할아버지의 체취, 한국방  
 의 온기, 선조들의 생활을 그  
 대로 느끼게 해주는 화로의  
 불씨들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어 꺼져 버린 지 오래다.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편리한 난방 기구가 발달  
 하지 않았던 옛날에 화로  
 는 난방뿐만이 아니라  
 생활에도 없어서는 안될  
 기구였다.  
 (다음호에 계속)

**우스운 이야기**

**절대 안돼**  
 선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번번이 퇴짜를 놓는 바람에  
 마흔이 다되도록 장가를 못  
 간 만복이.  
 지칠 대로 지친 만복이는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어머니  
 와 다투는 처녀를 구해 달라고  
 중매쟁이에게 부탁했다. 그러  
 면 어머니도 반대하시지는 않  
 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중매쟁이는 천신만고 끝에  
 만복이의 어머니와 생긴  
 모습, 말하는 것, 웃는 것,  
 심지어 음식 만드는 것까지  
 꼭 닮은 처녀를 찾아 선을 보  
 였다.  
 며칠 후 중매쟁이가 만복  
 이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만족  
 하셨죠?》  
 《네, 아주 훌륭해 하시던  
 데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시겠다고 완강  
 하게 반대하시더라구요, 글  
 씨.》

**수수께끼**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냈다.  
 《당신이 기차의 기관사야.  
 기차가 역을 출발할 때 26명  
 이었거든. 근데 처음 역에서  
 5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어.  
 또 다음 역에서는 내린 사람  
 은 없고 3명이 탔지. 그럼 기  
 관사의 이름은 뭐지?》  
 《순, 엉터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숫자를 더하고 빼는데 온  
 통 신경을 쏟던 아내가 살짝  
 질을 내자 남편이 화를 버터  
 냈다.  
 《것 봐! 당신은 항상내 말  
 을 귀담아 듣는 법이 없어. 맨  
 처음에 당신이 기관사라고 했  
 잖아!》

# 우리 글을 배움시다

(전호에서 계속)

이 나무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훌륭한 음악이 연주되는 나무란다.

그리고, 세재는 금빛 나는 물이지.

이 물을 한 방울만 물담은 그릇에 살짝 떨어뜨려 주면 그릇의 물은 금방 분수처럼 팔팔 부풀어 올라서 흐른다. 그렇지만 넘쳐 흐를 걱정이 없는 이상한 것이기도 하단다.

이 세 가지 보물만 있으면 이 집은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궁궐보다 훌륭할 거야.)

《할머니,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들어본 일조차 없는 것들이어요.》

《페르샤 나라와 인디아 나라의 국경을 향하여 스무 날 동안 여행을 하여라. 스무 날째 되는 날, 처음 만난 사람이 자세히 말해 줄 거야.》

할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지가 버렸습시다.

빠리자드는 오빠들이 사냥에서 돌아오자, 바로 오늘 낮에 있었던 할머니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응, 그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빠리자드, 그 세 가지가 갖고 싶니?》

## ГОВОРЯЩАЯ ПТИЦА



## 말하는 새

Когда ветер дует, то листья этого дерева издают прекрасную музыку. А в-третьих, нет воды с золотым отливом. Если незаметно капнуть эту воду на чашку, где набирают воду, то в чашке вода будет биться фонтаном. Но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что вода оттуда не выливается.

Вот если бы были эти три сокровища, то этот дом будет лучше, чем дворец короля, - сказала старушка.

- Но, бабушка, где находятся эти три сокровища? Я о них никогда не слышала.

В сторону границы между Персией и Индией надо идти двадцать дней, и на двадцатый встретишь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и он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жет, - сказала старуха и незаметно исчезла.

Когда братья вернулись с охоты, Паризадрассказала овстрече со старухой и ее странном рассказе.

- Да,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нный рассказ...

- Паризад, ты хочешь иметь эти три сокровища? - спросили братья.

Паризад ответила, что хочет.

- Хорошо, тогда поедem искать. Ты приготовь лошадь в дорогу. Старший брат стал готовиться в дорогу. Оседлал коня и бодрым голосом сказал:

- Паризад, я уезжаю. Оставлю тебе карманный нож, который берег всегда, если ты соскучишься по мне, то иногда вынимай его. И когда ты будешь вынимать его, он, как всегда, будет блестять, это значит, что со мной все благополучно. А если заржавеет или будет в крови, значит я умер или не смогу больше вернуться к вам, сказал старший брат и поскакал на лошади.

Возле дома Паризади младший брат провожали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и стояли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кольчуга и блестящий шлем не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маленькую точку.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빠리자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중아, 그럼 찾으러 가자. 그럼, 너는 타고 갈 말을 준비해 다오.》

큰오빠는 서둘러서 여행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치자, 가볍게 몸을 날려 훌쩍 말위에 올라 타고 썩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오마, 빠리자드야.》

내가 늘 간직하던 주머니칼을 두고 갈 테니 내가 생각 나면 종종 때 보아라.

그래서, 주머니칼이 평상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내가 아무 탈 없이 잘 있다는 표시요, 만일 녹슬어 있거나 붉은 피가 묻어 있다면 나는 먼 곳에서 죽음을 당하여 다시는 못돌아온다고 생각하여라.》

이렇게 빠리자드에게 말을 마치자, 제일 큰 오빠는 썩썩한 모습으로 말고삐를 잡고,

《칠커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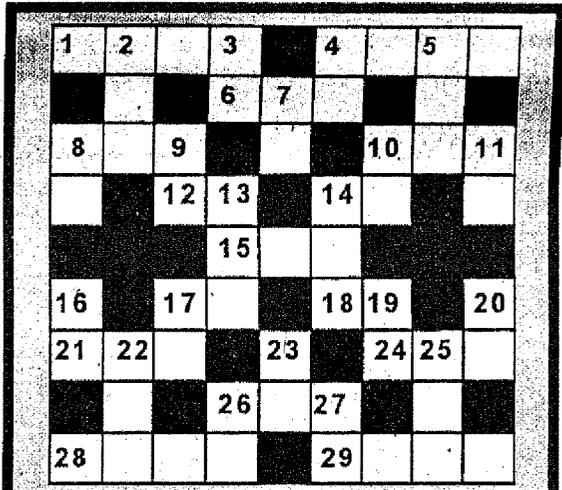
하고 말의 배를 걸어왔습니다.

말은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갔습시다.

집 앞에서 둘째 오빠와 빠리자드는 큰오빠의 갑옷과 투구가 눈부시게 빛나는 조그만 점으로 보일 때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말·말·맞·추·기



#### 오른쪽 방향 열쇠

- ①-노예·죄수 등을 강제적으로 식민지 등에 개척의 목적으로 이민시키는 일.
- ④-아름다운 빛깔·광택을 갖고 투명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고 희귀하게 상충되는 광물을 박아 만든 가락지.
- ⑥-부녀가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검은 관의 한 가지.
- ⑧-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 ⑩-새로운 기원.
- ⑫-돈이나 그 밖의 중요 물품을 넣어 두는 창고.
- ⑭-다른 나라에 가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임무를 맡아보는 가장 높은 직급의 외교대표.
- ⑮-죽은 이를 추상하여 나타낸 글.
- ⑰-《사》자가 붙은 기관의 행정책임자.

#### 아래쪽 방향 열쇠

- ②-직접 관계되는 당사국 이외의 나라.
- ③-같은 지역에 살며, 언어·혈연·풍습·문화·역사·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집단.
- ④-봄과 가을에 심는 밭곡식의 한가지.
- ⑤-한 세기의 절반.

⑦-콩을 갈아 걸러서 끓여 서습을 치고 영진것을 눌러써서 만든 음식.

⑨-무슨 일에 필요한 돈.

⑩-사람됨과 몸가짐이 정갈하고 교양이 있는 예의 바른 남자.

⑪-어떤 재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

⑬-찰쌀 또는 멥쌀 따위로 만든 떡에 고춧가루·매춧가루를 섞어서 붓개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근 장의 한가지.

⑭-큰 체로 된 글자.

⑯-국가의 법적승인이 없이 몰래 다니는 배.

⑰-군대조직의 한 단위.

⑱-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함.

⑳-실생활에서 받은 체험이나 느낌을 활막한 산문형식으로 표현하는 글.

㉑-바다물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

㉒-낮 12시에서 밤 12시까지의 동안.

㉓-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기적으로 주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

㉔-어떤 대상에 대하여 쏘는 사람들의 평판.

㉕-전사와 상등병의 군사징호를 가진 군인.

말말맞추기의 풀이난 정답을 적어 《고려일보》사 편집실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일보》사 주소 480044 г. Алматы, пр. Жибек Жолы, 50.

## Во что играют дети Кореи

### 팽이치기 «ПХЭННИЧИГИ»

В пхэнничиги в основном играют мальчики зимой. Пхэнни делают из дерева и играют, вращая его на льду или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земли. Эта игр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так же, как катание на санках, подбрасывание ногой монеты (камушка). Это в основном зимние игры.

#### 1. ИНВЕНТАРЬ ИГР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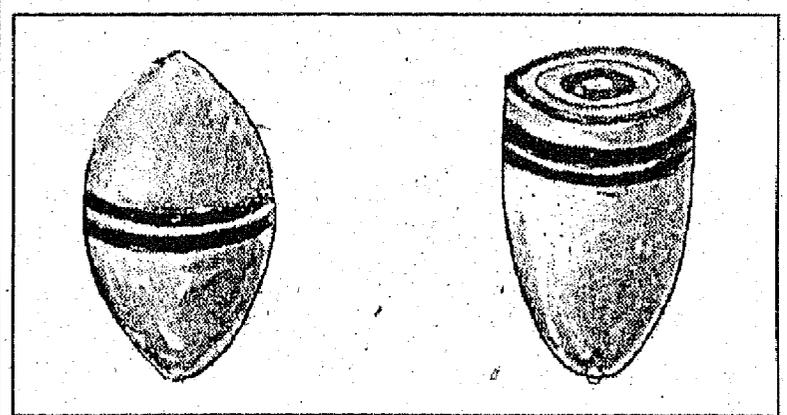
- а) Пхэнни. Обычно берется кусок круглого дерева длиной 5-10 см. Один конец стругают остро и на остром конце забивают железный шарик.
- б) Пхэннич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ращать пхэнни, нужно иметь палку длиной 30 см, и к концу привяз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длине этой палки, веревк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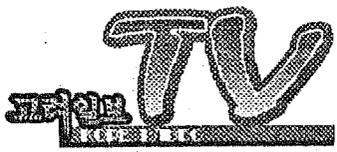
#### 2. ПРАВИЛА ИГРЫ

Правила игры пхэнничиги очень просты, их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два вида:

- а) Несколько ребят вращают пхэнни и друг с другом соперничают, кто дольше будет вращать.
- б) Вращают пхэнни до их столкновения. Выигрывает тот, у кого пхэнни продолжает свое вращение.

3. Ребята, сами изготавливая пхэнни, постепенно научатся изготавливать хорошо вращающуюся пхэнни. При изготовлении пхэнниче, необходимо так подобрать веревку, чтобы он вращался долго.





# ТЕЛЕНЕДЕЛЯ

## ПОНЕДЕЛЬНИК, 25

###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С"лем, "аза"стан! Утренняя программа. 8.4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50 "Айтапай к"рсету экраны. "53-жылды сал"ын жазы". 10.25 "Хабар". 11.05 "Айба"шал". "Уырша" театрынын "ойылымы". 11.35 "Путешествие Пилигрима". Мультфильм. 12.25 "аза" теледидарынын бейне жазу "орынан". "Суретши" озы Мама"ов". 13.0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13.15-13.20 Программа.

17.30 Программа. 17.35 Мультфильм. 17.45 "Беллиссима" ("Красавица"). Телесериал (Венесуэла). 41-я серия. 18.35 "Гутел абелл!" 19.00 В эфире АТВ. 20.00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6-я серия. 20.3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21.5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1.5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2.00 Аманат. "Досты"ымыз жарасымдылы" тап"ан". 22.30 Дина Н"рпейісова атында"ы"лт аспаптар оркестрынын концерти. 23.00 "45 минут". 23.45 Сіздерд"і с"рауларыыз бойынша. 24.00 "Хабар". 00.20-01.10 V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и и песни "Азия дауысы". Передача 1-я.

### ОРБИТА-4

7.00 "Телеутро". 10.00 Новости. 10.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11.10 "Поле чудес". 12.00 "Человек и закон". 12.25 "Испорченная погода". Мультфильм. 12.35 Огород крупный год. 13.00 Новости. 13.20 В эфир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Мир". 14.00 "Овод". Сериал. 1-я серия. 15.10 "Иванов, Петров, Сидоров...". 16.00 Новости. 16.20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17.00 "Отверженные". Мультсериал. 17.25 "Звездный час". 18.00 "Шаргалка". 18.05 "Элен и ребята". Молодежный телесериал (Франция). 18.30 "Тет-а-тет". 19.00 Новости. 19.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20.10 "Час пик". 20.35 "Угадай мелодию". Телеигра. 21.00 "Если..." Ведущий-В. Познер. 21.45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лыши". 21.55 Реклама. 22.00 Время. 22.45 Реклама. 22.50 Программа. 22.55 Элина Быстрицкая и Сергей Бондарчук в фильме "Неокопченная повесть". 00.40 Футбольное обозрение. 01.10-01.30 Время. 02.55-03.55 Тенис. Кубок Дэвиса. Полуфинал. Сборная России-сборная Германии.

###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3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35 Клип-антракт. Джими-лжи. 9.40 Ритмика. 9.55 Требуется... Требуется... 10.00 Мультфильм. "Свинопад". 10.15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Цена головы".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11.40 Телегазета. 11.45 Новая линия. 12.00 Вести. 12.20 "Миллиейская хроника". 12.30-13.45 Телегазета России. А. Николаев. "Бабочка...Бабочка...". 17.00 Программа. 17.05 Там-там новости. 17.20 Праздник каждый день. 17.30 Компас "Роста". "Соленый ветер". 17.50 "Купить-не купить". 18.00 Вести. 18.20-19.15 В Алматы АТВ. 18.20 Спасение 911. 19.15 Тенис. Кубок Дэвиса. Полуфинал. Россия-Германия. 20.10-21.00 В Алматы АТВ. 20.10 Эксповидео. 20.25 Новая линия. 20.55 Реклама. 21.00 Вести. 21.20 Реклама. 21.25-22.25 Детектив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Алская змея". Худ. фильм из сериала "Инспектор Морс"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Часть 1-я. 23.45 Неполупрарная тема. 24.00 Вести. 00.20 Реклама. 00.25 Подробности. 00.35 Без ретуши. 01.30 Реклама. 01.35 Киномарафон. "Берлин, Александрплац". Худ. фильм (ФРГ). 9-я серия. 02.40 Реклама. 02.45 Автомиг. 02.50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по шахматам. Г. Каспаров-В. Анад. 03.10 Река времени. 03.15-03.27 Реклама.

###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Программа Светланы Задужиной "Третье открытие" (по окончании MTV). 9.00 Страна Мультландия. "Белоснежка и 7 гномов". 11.00 Искатели приключений. "Кортик". 1-2-я серия. 14.00 "Телеброк". 15.00 Михаил Боярский в героико-прикл. фильме "Д'Артаньян и три мушкетера". 1-2-я серия. 18.00 Чарли Чаплин в ранних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комедиях. 19.00 "Телеброк". 20.00 "О разном" (по окончании-MTV). 21.00 Станислав Садальский в фильме "Веселенькая прогулка" (по окончании-MTV). 23.00 "О разном". 23.20 "Телеброк". 23.30 Мелодрама "Второй по счету". 01.15 "Телеброк". 01.25 Детективный триллер "Страсть и рай".

### КТК

07.00 Утрення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08.30 Комедия "Оскар"(Франция) 09.55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0.30 Детектив "Бармен из "Золотого якоря" 12.0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2.3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блок:"Досье начинающего бизнесмена" 13.30 -16.30 Технический перерыв 16.3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7.10 Экран-детям. "Русалочка". Мультфильмы 18.40 "Наш семейный доктор" 19.10 "Семейный альбом"(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взрослых) 19.20 Реклама 19.25 Вечерние новости" 19.45 Реклама 19.5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20.25 Частное лицо 20.35 Реклама 20.4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0.45 "Алемкоммерц" и КТК представляют "Всемирные телевизионные новости" (WNT) 20.55 Реклама 21.00 Сериал "Детективы на полставки" 1.50 Реклама 21.55 "Бережного бог бережет" 22.00 "CNN" 22.15 Лучшая музыкальная десятка "Music and Media" 22.20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Приключенческая лента "Русские братья" 23.00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23.05 Продолжение фильма "Русские братья"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С"лем, "аза"стан! Утренняя программа. 8.4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50 Экран повторного фильма. "Чертик под лобовым стеклом". 10.15 "Хабар". 10.55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6-я серия. 11.25 "Великая тайна динозавров".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й фильм. 11.45 Фильмы режиссера В. Чугулова. "Мишень", "Водитель и ГАИ". 12.05 "аза" теледидарынын бейне жазу "орынан". "Жылдар, ойлар", "уанды" Ша"ытбасев. 13.0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13.15 "45 минут". 14.00-14.05 Программа.

17.55 Программа. 18.00 Мультфильм. 18.10 "Мальчиш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Жамбыл). 18.35 "Телбйл доп". 19.00 В эфире АТВ. 20.00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7-я серия. 20.3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21.5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1.5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2.00 "Казахтелефильм" представляет... 22.30 В музыкальной гостинице "Джаз". 23.00 "45 минут". 23.45 По вашей просьбе. 24.00 "Хабар". 00.20-01.30 V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и и песни "Азия дауысы". Передача 2-я.

### ОРБИТА-4

7.00 "Телеутро". 10.00 Новости. 10.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11.10 "Если..." Ведущий-В. Познер. 11.55 В мире животных. 12.35 "Пойми меня". Телеигра. 13.00 Новости. 13.20 В эфир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Мир". 14.00 "Овод". Сериал. 2-я серия. 15.10 "Иванов, Петров, Сидоров...". 16.00 Новости. 16.20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17.00 "Посмотри, послушай". 17.20 "Кактус и К". 17.30 "Квартеры" - веселая вквмпания". 17.40 "Марафон-15". 18.00 Очень короткие новости. 18.05 "Элен и ребята". Молодежный телесериал (Франция). 18.30 "Джем". 19.00 Новости. 19.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20.10 "Час пик". 20.35 "Угадай мелодию". Телеигра. 21.00 "Тема". 21.45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лыши". 21.55 Реклама. 22.00 Время. 22.45 Реклама. 22.50 Программа. 22.55 "Из первых рук". 23.05 Фильм Луккино Висконти "Чувство". 01.15-01.30 "Версия". 02.55 Хит-парад "Остатки". 03.40 "Улицы Сан-Франциско". Сериал. 04.30-05.10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3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35 Клип-антракт. М. Шуфутинский. 9.40 Ритмика. 9.55 Требуется... Требуется... 10.00 Спешите видеть. "Камень сповидений". Мультсериал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0.25 Телегазета. 10.30 "Сергей Есенин". "Последний поэт". Передача 5-я. 10.50 "Миллиейская хроника". 11.00-11.20 Вести. 17.00 Программа. 17.05 Там-там новости. 17.20 Новая линия. 17.50 Месяцеслов. 18.00 Вести. 18.20-21.00 В Алматы АТВ. 18.20 Спешите видеть. "Камень сповидений". Мультсериал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8.45 Праздник каждый день. 18.55 Компас "Роста". "Соленый ветер". 19.10 Мультфильм. "Почтовый приключение". 19.20 Реклама. 19.25 "Россия. Обязательное в любви". Премье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го цикла. Фильм 20-й. 19.55 Торговый дом "Ле Монти". 20.10 L-клуб. 20.55 Реклама. 21.00 Вести. 21.20 Реклама. 21.25 Мировая деревня. 21.55 Автомиг. 22.00 Репортер. 22.15 Реклама. 22.20-22.25 Река времени. 23.45 "ЭКС". Экран криминальных сообщений. 23.55 Реклама. 24.00 Вести. 00.20 Реклама. 00.25 Подробности. 00.35 Киномарафон. "Берлин, Александрплац".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ФРГ). 10-я серия. 01.40-01.52 Реклама.

###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О разном" (по окончании-MTV). 9.00 Страна Мультландия. "Приключения утенка Дональда". 11.00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индийского кино. Митхун Чакраборти в муз. мелодраме "Танцуй, танцуй". 14.00 "Телеброк". 15.00 К дню рождения Олега Басилашвили-трагикомедия "Вокзал для двоих". 17.50 Чарли Чаплин в фильме "Золотая лихорадка". 19.00 "Телеброк". 20.00 "О разном". 20.20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Баянгали Койшибасва "Тимур". 21.00 Прикл. фильм "Третий не лишний" (по окончании-MTV). 23.00 "О разном". 23.20 "Телеброк". 23.30 Мелодрама "Мария Магдалина". 00.45 "Телеброк". 00.55 Гангстерский боевик "Несущие смерть".

### КТК

07.00 Утрення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08.30 "CNN" 08.45 Только на КТК.Проект "Открытые небеса" "Москва.Кремль.ХХ век" 09.4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0.30 Мультфильмы 10.50 Приключенческая лента "Русские братья" 12.0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2.4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блок:"Досье начинающего бизнесмена" 13.45 - 16.30 Технический перерыв 16.3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7.20 Экран-детям. "Щелкунчик" Мультфильмы 18.45 Только на КТК.Проект "Открытые небеса" "Совсем другие" 19.10 "Семейный альбом"(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взрослых) 19.20 Реклама 19.25 "Вечерние новости" 19.45 Реклама 19.5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20.25 Частное лицо 20.35 Реклама 20.4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0.45 "Алемкоммерц" и КТК представляют "Всемирные телевизионные новости" (WNT) 20.55 Реклам 21.00 Всемирная телепремьера - сериал "Против течения" (4 серия) 21.50 Реклама 21.55 Хроника прошлых лет(к 200-летию архивного дела) 22.00 "CNN" 22.15 Историческая кинолента "Прах и кровь"(3 серия) 23.05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23.10 Только на КТК.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сериал "По ту сторону закона" (криминальная хроника) 23.40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С"лем, "аза"стан! Утренняя программа. 8.4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50 "Айтапай к"рсету экраны. "Мыр, к"з жасы, махаббат". 10.25 "Хабар". 11.15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7-я серия. 11.45 "аза" теледидарынын альпий "орынан". "Халы" азынасы". Эпосты" музыка. 12.35 Мультфильм. 13.0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13.15 "45 минут". 14.00-14.05 Программа.

17.55 Программа. 18.00 Мультфильм. 18.10 "Беллиссима" ("Красавица"). Телесериал (Венесуэла). 42-я серия. 19.00 В эфире АТВ. 20.00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8-я серия. 20.3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21.5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1.5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2.00 Человек и закон. 22.20 Вечер казахской музыки. 23.00 "45 минут". 23.45 Сіздерд"і с"рауларыыз бойынша. 24.00-00.20 "Хабар".

### ОРБИТА-4

7.00 "Телеутро". 10.00 Новости. 10.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11.10 "Тема". 11.50 Клуб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12.35 "Пойми меня". Телеигра. 13.00 Новости. 13.20 В эфир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Мир". 14.00 "Овод". Сериал. 3-я серия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15.10 "Иванов, Петров, Сидоров...". 16.00 Новости. 16.20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17.00 "Домисолька". 17.20 "Детки в клетке". 17.30 Конкурс "Веселой песенки". 18.00 "Шаргалка". 18.05 "Элен и ребята". Молодежный телесериал (Франция). 18.30 "Тин-тоник". 19.00 Новости. 19.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20.10 "Час пик". 20.35 "Угадай мелодию". Телеигра. 21.00 Кинопанорама. 21.45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лыши". 21.55 Реклама. 22.00 Время. 22.45 Реклама. 22.50 Программа. 22.55 Футбол. Кубок УЕФА. 1/32 финала. "Ливерпуль" (Англия)-"Спартак-Алания" (Владикавказ). 01.00 Новые обыватели. 01.25-01.40 Новости. 02.55-03.45 "Улицы Сан-Франциско". Сериал.

###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3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35 Ритмика. 9.50 Требуется... Требуется... 9.55 "Две жизни и одна судьба". 10.20 Спешите видеть. "Камень сповидений". Мультсериал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0.45 Телегазета. 10.50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Санта-Барбара". 11.40 Крестынский вопрос. 12.00 Вести. 12.20 "Миллиейская хроника". 12.30 Ключевой момент. 12.40-13.25 "Пилигрим". Российское бюро путешествий. 17.00 Программа. 17.05 Там-там новости. 17.20 Праздник каждый день. 17.30 Чья сторона? 18.00 Вести. 18.20-19.25 В Алматы АТВ. 18.20 Спешите видеть. "Камень сповидений". Мультсериал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8.45 Телемарафон "Шаги победы". 19.25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по шахматам. Г. Каспаров-В. Анад. 19.40-21.00 В Алматы АТВ. 19.40 Новая линия. 20.10 Вас приглашает фирма. "Салва". 20.25 Своя игра. 20.55 Реклама. 21.00 Вести. 21.20 Реклама. 21.25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Санта-Барбара". 22.15 "Никто не забыт". 22.20-22.25 Реклама. 23.45 "ЭКС". Экран криминальных сообщений. 23.55 Реклама. 24.00 Вести. 00.20 Реклама. 00.25 Подробности. 00.35 Автомиг. 00.40 "Клуб губернаторов". 01.20 Реклама. 01.25 Рек-тайм. 01.55 Река времени. 02.00-03.45 Футбол. Кубок УЕФА. 1/32 Финала. "Локомотив" (Москва)-"Бавария" (Мюнхен).

###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О разном". 8.20 Программа "Тимур". 9.00 Страна Мультландия. "Пиноккио". 10.30 Искатели приключений. "Кортик". 3-я серия. 12.10 Джефф Спикман в фильме "Совершенное оружие". 14.00 "Телеброк". 15.00 Михаил Боярский в героико-прикл. фильме "Д'Артаньян и три мушкетера". 3-я серия. 17.00 Жан-Поль Бельмондо в детективе "Вне закона". 19.00 "Телеброк". 19.10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туризма. 20.00 "О разном" (по окончании-MTV). 21.00 Вячеслав Тихонов в фильме "Авантюра" (по окончании-MTV). 23.00 "О разном". 23.20 "Телеброк". 23.30 Мишель Пфайффер в мелодраме "Опасные умы". 01.25 "Телеброк". 01.35 Полицейский боевик "Под личиной".

### КТК

07.00 Утрення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08.30 "CNN" 08.45 Только на КТК.Проект "Открытые небеса" "Танджерин дрим,три фазы" 09.4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0.30 Экран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го фильма: "Бриллианты остаются навсегда" 12.3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3.1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блок:"Досье начинающего бизнесмена" 14.15 - 16.30 Технический перерыв 16.3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7.20 Экран-детям. "Золушка". М лтфильмы 18.50 Только на КТК.Проект "Открытые небеса" "Возвращение с Олимпа" 19.10 "Семейный альбом"(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взрослых) 19.20 Реклама 19.25 "Вечерние новости" 19.45 Реклама 19.5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20.25 Частное лиц 20.35 Реклама 20.4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0.45 "Алемкоммерц" и КТК представляют "Всемирные телевизионные новости" (WNT) 20.55 Реклама 21.00 Передача "А поговорить..." (Фирма "Инком-мебель") 21.10 "Маски-шоу" (Маски на киностудии) 21.50 Реклама 21.55 "Бережного бог бережет" 22.00 "CNN" 22.15 Комедия "Мания величия"(Франция) 23.30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23.33 Продолжение фильма "Мания величия"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 -2.Реклама.

#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С"лем, "аза"стан! Утренняя программа. 8.4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50 Экран повторного фильма. "Влюблен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желанию". 10.15 "Хабар". 10.55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8-я серия. 11.25 "аза" телефильм" студиясы. "Ма"жан". 12.20 "Театральные истории".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телефильм. 13.0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13.15 "45 минут". 14.00-14.05 Программа.

17.55 Программа. 18.00 Мультфильм. 18.20 "Ел"ор"аны". 18.30 "Денсаулы". 19.00 В эфире АТВ. 20.00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9-я серия. 20.30 "Ж"рмекс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йржа.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21.5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1.55 "л"и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2.00 "Лицунь". Талат Мусабаев. Авто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Ж. Ахметовой. 22.30 "Реформа" в осенней страде. В передаче участвует глава Север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Гартман. 23.00 "45 минут". 23.45 По вашей просьбе. 24.00 "Хабар". 00.20-00.40 "Мальборо-мотор". Телешоу.

### ОРБИТА-4

7.00 "Телеутро". 10.00 Новости. 10.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11.10 Футбол. Лига чемпионов. "Спартак" (Москва)-"Легия" (Варшава). 2-й тайм. 10.30 "Ювентус" (Италия)-"Стигуа" (Румыния). 2-й тайм. 13.00 Новости. 13.20 В эфир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Мир". 14.00 "Последнее дело комиссара Берлаха". 1-я серия. 15.10 "Иванов, Петров, Сидоров...". 16.00 Новости. 16.20 "Кумиры, кумиры...". 17.00 "Мультитроллия". 17.20 "На балу у Золушки". 17.40 Компьютер-холл. 18.00 Очень короткие новости. 18.05 "Элен и ребята". Молодежный телесериал (Франция). 18.30 "... До шестидцати и старше". 19.00 Новости. 19.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20.10 "Час пик". 20.35 В мире джаза. 21.00 "Чтобы помнили...". Л. Фетисова. 21.45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лыши". 21.55 Реклама. 22.00 Время. 22.45 Реклама. 22.50 Программа. 22.55 "Москва. Кремль". 23.15 Футбол. Лига чемпионов. "Спартак" (Москва)-"Легия" (Варшава). 01.15-01.30 "Версия". 02.55 Футбол. Лига чемпионов. Обзор 7 матчей. 04.20 "Улицы Сан-Франциско". Сериал. 05.10-05.50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3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35 Телегазета. 9.40 Ритмика. 9.55 Требуется... Требуется... 10.00 Спешите видеть. "Камень сповидений". Мультсериал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0.25 Торговый дом. 10.40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Санта-Барбара". 11.30 "Миллиейская хроника". 11.40 Крестынский вопрос. 12.00 Вести. 12.20 Ключевой момент. 12.30 "Четвертая жизнь Кувейта".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13.00-13.15 Новая линия. 17.00 Программа 17.05 Там-там новости. 17.20 Праздник каждый день. 17.30 Компас "Роста". "Здравствуйте". 18.00 Вести. 18.20-18.45 В Алматы АТВ. 18.20 Спешите видеть. "Камень сповидений". Мультсериал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8.45 "Голос Азии". 6-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и и песни. 19.35-19.40 В Алматы АТВ. 19.35 Реклама. 19.40 "Голос Азии". Продолжение. 20.50-21.00 В Алматы АТВ. 20.50 Река времени. 20.55 Реклама. 21.00 Вести. 21.20 Реклама. 21.25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Санта-Барбара". 22.15 "Никто не забыт". 22.20-22.23 Реклама. 23.45 Ваш партнер.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24.00 Вести. 00.20 Реклама. 00.25 Подробности. 00.35 Автомиг. 00.40 Лидер-прогноз. 01.05 Реклама. 01.10 XX век в кадре и за кадром. "Неизвестный Ромм". 02.00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по шахматам. Г. Каспаров-В. Анад. 02.15 Реклама. 02.20 "Евгений Светланов. 40 лет спустя". 02.50-03.20 В мире авто- и мотоспорта.

###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О разном" (по окончании-MTV). 9.00 Страна Мультландия. "Пиноккио и император ночи". 11.00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индийского кино. Дипли Капалди в мелодраме "Бобби". 14.00 "Телеброк". 15.00 Это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мир. "Голографический человек" и "Черный скорпион". 18.00 Иллюзионное шоу "Тантственный волшебник". 19.00 "Телеброк". 20.00 "О разном". 20.20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Баянгали Койшибасва "Тимур". 21.00 Вечер комеди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брачные узы" (по окончании-MTV). 23.00 "О разном". 23.20 "Телеброк". 23.30 К дню рождения Марчелло Мastroиани - мелодрама "Об этом не говорят". 01.20 "Телеброк". 01.30 Истор. фильм "Сага о викинггах".

### КТК

07.00 Утрення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08.30 "CNN" 08.45 Только на КТК.Проект "Открытые небеса" "Парад клоунов" 09.4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0.30 Комедия. "Мания величия"(Франция) 12.1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2.5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блок:"Досье начинающего бизнесмена" 13.55 - 16.30 Технический перерыв 16.3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7.20 Экран "Детям. "И жили они счастливо" Мультфильмы 18.40 Только на КТК.Проект "Открытые небеса"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авловске" 19.10 "Семейный альбом"(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взрослых) 19.20 Реклама 19.25 Вечерние новости" 19.45 Реклама 19.5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20.25 Частное лицо 20.35 Реклама 20.4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0.45 "Алемкоммерц" и КТК представляют "Всемирные телевизионные новости" (WNT) 20.55 Реклама 21.00 "Маски-шоу"(Маски встречаются с джентельменами) 21.50 Реклама 21.55 Хроника прошлых лет (к 200-летию архивного дела) 22.00 "CNN" 22.15 Фильм недели Мелодрама "Лукреция Борджиа" 23.00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23.05 Продолжение фильма "Лукреция Борджиа"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Реклама.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С"лем, "аза"стан! Утренняя программа. 8.45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50 Экран повторного фильма. "Там, где горы белые". 9.55 "Хабар". 10.35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19-я серия. 11.05 "Тансиан инходша".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11.40 "аза" теледидарный алтын "орынан". "перм"мирм". Фарид Ш"ринова. 13.00 "Ж"рмек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изра. 13.15 "45 минут". 14.00-14.05 Погода, программа.

17.55 Программа. 18.00 Мультфильм. 18.10 "Беллисма" ("Красавица"). Телесериал (Венесуэла). 43-я серия. 19.00 В эфире АТВ. 20.00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20-я серия. 20.30 "Ж"рмек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изра.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21.5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1.55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2.00 "н"шашу". 22.45 Студия "Елимай" Асанали Ашимова представляет "ле"с"эди патшасы...". 23.00 "45 минут". 23.45 Сидерди с"рауларыйыз бойышша. 24.00-00.20 "Хабар".

ОРБИТА-4

7.00 "Телеустро". 10.00 Новости. 10.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11.10 "Чтобы помнили...". Д.Фетисова. 11.50 "Хрустальный башмачок". 12.40 "Юлмы меня". Телеигра. 13.00 Новости. 13.20 В эфире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Мир". 14.00 "Последнее дело комиссара Берлаха". 2-я серия. 15.10 "Иванов, Петров, Сидоров...". 16.00 Новости. 16.20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17.00 "Белый клык". Телесериал для детей. 17.25 "Созвездие Орфея". 17.35 Новая реальность. 18.00 "Шпаргалка". 18.05 Рок-урок. 19.00 Новости. 19.20 "Тропиканка". Телесериал (Бразилия). 20.10 "Дикое поле". 20.25 "Человек и закон". 20.55 "Поле чудес". 21.45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лыши". 21.55 Реклама. 22.00 Время. 22.45 Реклама. 22.50 Программа. 22.55 "Рейли-король шпионов". Сериал. 8-я серия. 23.55 "Версии". 00.10 "Взгляд". 01.05-01.44 "Музобоз". 02.55 "Улицы Сан-Франциско". Сериал. 03.45-04.25 "Семь дней спорта".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3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35 Клип-антракт. Н. Платицына. 9.40 Ритмика. 9.55 Требуются... Требуются... 10.00 Призыр телефестивали. "Только имяда эхо...".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10.50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Санта-Барбара". 11.40 Крестьянский вопрос. 12.00 Вести. 12.20 Телегазета. 12.25 "Миллиейская хроника". 12.35-13.25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17.00 Программа передач. 17.05 Там-там новости. 17.20 Праздник каждый день. 17.30 Компас "Роста". "Пускай смеются дети". 17.50 Месяцеслов. 18.00 Вести. 18.20-21.00 В Алматы АТВ. 18.20 Дисней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кандальный Джон".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20.20 Реклама. 20.25 Минирет. 20.55 Реклама. 21.00 Вести. 21.20 Реклама. 21.25 Домашний экран. "Санта-Барбара". 22.15 Дневник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95". 22.20-22.23 Реклама. 23.45 Новая линия. 24.00 Вести. 00.20 Реклама. 00.25 Подробности. 00.35 Автомб. 00.40 Футбол. Кубок обладателей кубков. 1/16 финала. "Арагат" (Ереван). "Динамо" (Москва). 1-й тайм. 01.30 Реклама. 01.35 Футбол. Кубок обладателей кубков. 1/16 финала. "Арагат" (Ереван). "Динамо" (Москва). 2-й тайм. 02.35-02.40 Река времени.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О разном". 8.20 Программа "Тимур". 9.00 Страна Мультландия. "Ангел-полицейский". 10.00 Искатели приключений. "Малыш-скейбордист". 12.00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Заповеди нидзи". 14.00 "Телеброк". 15.00 Мелодрама "Однажды 20 лет спустя" и фантаст. комедия "Вредный Фред". 18.00 Сборник мультфильмов. 19.00 "Телеброк". 20.00 "О разном". 20.20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Валентины Владимировой "Что мы можем". 21.00 Вечер комедии. "Наг со сдвигом" (по окончании-MTV). 23.00 "О разном". 23.20 "Телеброк". 23.30 Мелодрама "Только ради любви". 01.05 "Телеброк". 01.15 Триллер "Сеть".

КТК

07.00 Утрення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Здравствуйте" 08.30 "CNN" 08.45 Только на КТК. Проект "Открытие небеса" "Из глубины веков: Мастера" 09.4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0.30 Детектив "Линия смерти" (СНГ) 12.0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2.4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блок: "Досье начинающего бизнесмена" 13.45 - 16.30 Технический перерыв 16.3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7.20 Экран-детям. "Принцесса подводного царства" Мультфильмы 18.40 Музы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расная волна" ("Red Wave") 19.10 "Семейный альбом"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взрослых) 19.20 Реклама 19.25 Вечерние новости 19.45 Реклама 19.5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20.25 Частное лицо 20.35 Реклама 20.4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0.45 "Алемкоммерц" и КТК представляют "Всемирные телевизионные новости" (WTN) 20.55 Реклама 21.00 "Береженого бог бережет" 21.05 "Музы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21.50 "CNN" 21.55 Комедийный сериал "Корабль любви" (4 серия) 22.50 Реклама 22.55 "Тамаша Тарту" 23.25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 Реклама. 23.30 Детективная лента "Суинни" (из серии "Подразделение быстр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 Реклама.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Мультфильм. 8.25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30 "Хабар". 9.10 "Дерзкие и красивые". Телесериал (США). 20-я серия. 9.40 Фильм-детям. "Через тернии к звезда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1-я серия. 10.55 "К"кжик" телеклубы "сынады": "Салбуры", "Тай"ажайып. Ол"ниелер орай"ан". 11.50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11.55 "аза" теледидарный алтын "орынан". "М"сінші К"кімжан Наурызбаев". 13.00 "Ж"рмеке-ярмарка". Электронная телебизра. 13.15 "45 минут". 14.00 В эфире АТВ. 15.00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15.05 "Дубль-1". Программа о кино. 15.35 "Ложная кля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1-я серия (Индия). 16.40 Серии о надежде. Передача 2-я "Надежда для одиноких". 17.00 "Мальборо-мотор". Телешоу. 17.20 "Горел". Телесериал. 1-я серия. 18.10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18.15 "Тел"обыр". Терме. 18.40 "Гутен абенд!". 19.15 "н-к"й керуені". 19.45 "Шанс". Программа для молодежи. 20.15 "Ойтол"ау". К"йіші". Хасенов ("ара"анды).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21.50 "5 минут с Народным банком". 21.55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2.00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ая биржа-двигатель прогресса". 22.10 "Курьер".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22.55 "Алтын дала". Телефортуна. 23.45 По вашей просьбе. 24.00 "Хабар". 00.10 В мире фантастики. "Странная история доктора Джексона и мистера Хайда".

ОРБИТА-4

8.30 "Телеустро". 9.45 "Слово пастыря". Митрополит Кирилл. 10.00 "Версии". 10.20 "С утра пораньше". 10.50 Фильм-детям. "Кенша и гуманоиды". 11.10 "Синича, роши и огонь". Мультфильм. 11.30 "Утренняя почта". 12.00 "Смак". 12.20 "Здоровье". Помогите себе сам. 12.50 Сегодня и завтра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13.20 "Бомонд". 13.40 Вера Васильева в кинокомедии "Свадьба с приданым". 15.25 "Зеркало". 16.00 Новости. 16.20 "Большие гонки". 16.45 Елена Проклова в фильме "Ключ без права передачи". 18.20 В мире животных. 19.00 Новости. 19.20 Америка с М. Таратугой. 20.10 Острозажетный детектив "Золото партии". 21.45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малыши". 21.55 Реклама. 22.00 Время. 22.45 Реклама. 22.50 Программа. 22.55 "Рейли-король шпионов". Сериал. 9-я серия. 23.55 "Брейл-ринг". 00.40 Баскетбол. Чемпионат суперлиги. Мужчины. "Динамо" (Москва). "Спартак" (Москва). 01.25-01.44 Новости. 02.50 "У всех на устах". Ведущая-Н. Дарьялова. 03.20 "Улицы Сан-Франциско". Сериал. 04.10-05.00 "Манхэттен-трансфер" в Москве.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2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25 От "Винта". 9.40 Гостиница дала Мазая. 9.55 Вертика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будни". 10.25 "Пилтрим". Российское бюро путешествий. 11.10 Золотая шпора. 11.40 А. Гурнов. "Чисто английсий репортаж". 11.50 Дневной сеанс. "Большое золото мистера Гриниуд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13.00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по шахматам. Г. Каспаров-В. Анад. 13.15 "Экстрематура-забытые леса Испани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и телесериал "Тайны животных"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14.10 Д Москва-дешко. 14.55 Клип антракт. О. Газманов. 15.00 Вести. 15.30 Де-факто. 15.45 Домашний экран. "Бура над Ла-Манше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из сериала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миссара Метрз". Часть 1-я. 16.30 Устами младенца. 17.00 Мультфильм. "Волк изобретатель". 17.10 Тапеч-аксресс. 17.25 Кинофлеша. 17.40 Реклама. 17.45-21.00 В Алматы АТВ. 17.45 Телеастр Россия. "Жить до страха и боли...". К 100-летию С. Есенина. 18.55 Реклама. 19.00 Двойной портрет. 19.50 Реклама. 19.55 Футбол.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Локомотив" (Нижний Поволор). "Локомотив" (Москва). 21.55 Реклама. 22.00 Вести. 22.20-22.25 Реклама. 23.45 "Кино в октябре". 24.00 Вести. 00.20 Реклама. 00.25 Автомб. 00.30 Премьера телегазета. "Дама с камелия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Польша). 02.20 Джентльмен-шоу. 02.50 "Звуковая дорожка". 03.35-03.40 Река времени.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О разном". 8.20 Программа "Что мы можем". 9.00 Волшебный мир киносазки. "Варвара-краса, длинная коса". 11.00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индийского кино. Джитендра в детективе "Инспектор полиции". 14.00 "Телеброк". 15.00 Леонид Филатов в лирической комедии "Забывая мелодия для флейты". 17.20 Звезды эстрады. Концерт Тины Тернер. 18.30 Американский телесериал "Онипервые". 19.00 "Телеброк". 20.00 "О разном". 20.20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Норы Бекмахановой "Необы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человека". 21.00 Вечер комедии. "В Багдаде все спокойно" (по окончании-MTV). 23.00 "О разном". 23.20 "Телеброк". 23.30 Мелодрама "Бульвар пещивышхиса належд". 01.05 "Телеброк". 01.15 Боевик "Человек-бомба".

КТК

09.00 Повтор "Вечерние новости" 09.20 Мультфильмы. 09.45 Только на КТК. Проект "Открытие небеса" "Параграф" 10.1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1.00 Детективная лента "Суинни" (из серии "Подразделение быстр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12.3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3.15 Только на КТК. Проект "Открытие небеса" "Эверест: Тайна Мэллори и Ирвина" 14.05 Программа мультфильмов 14.50 Экран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го фильма. "Право на убийство" 17.00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7.45 Музы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18.30 Только на КТК. Детский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й сериал "Секретная Миссия" (4 часть) 18.55 Передача "А как там у них, за бутром". 19.20 Реклама 19.25 Тележурнал "Жизнь" 19.45 Реклама 19.50 Коммер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20.25 Реклама 20.30 Сериал "Детективы на полставки" 21.20 Реклама 21.25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 мировые новости шоу-бизнеса 21.50 Реклама 21.55 Детектив из сериала "Тропическая жара" 22.50 Мультфильм для взрослых 23.00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 Реклама. 23.03 Чак Норрис в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м боевике "Одинокий волк Маквейд"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 Реклама

КАЗАХСТАН

8.00 "Азан". 8.05 "Хабар". 8.45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8.55 "Горел". Телесериал. 1-я серия. 9.45 Мультфильм. 10.30 "нши балапан". 11.00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11.05 "Музей звуков". Авто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Ю. П. Арапина. 11.35 Фильм-детям. "Через тернии к звездам". 2-я серия. 12.40 Телегалерея. 13.10 Сфера "X". 13.30 "Здравствуй, японский язык!".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Урок 21-й. 14.00 В эфире АТВ. 15.00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15.05 "Ауыл тынысы". 15.25 "Ложная кля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2-я серия (Индия). 16.30 "Кездесу". Сапар"али Бегалип. 17.30 "Инжу-маржан". 18.00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ъект. 18.20 "Коре сарам". 18.50 "Беллисма" ("Красавица"). Телесериал (Венесуэла). 44-я серия. 19.45 РК ТРК, АК "Буя-Казахстан", фирма "Жилдетт" представляют: "Мировые спортивные новости". 20.15 Студия "Азия дауысы". После словесные. 20.45 "Балб"бек". 20.55, 21.20, 21.45 Реклама. 21.00 "Хабар". Итоги недели. 21.50 "л"несса (программа, анонс, реклама). 21.55 "Жастар арнасы". "Жігітті с"лганы-95" республикалы конкурс. 23.15 "К"усар". Тележурнал. 23.45 Сидерди с"рауларыйыз бойышша. 24.00-00.20 "Хабар".

ОРБИТА-4

9.00 Телеканал "Подъем". 11.30 "Пока все дома". 12.05 "Утренняя звезда". 12.50 "Служу России". 13.20 "Играй, гармонь". 13.50 Пол знаком Пи. 14.30 "Золотой кадр". Ираклий Андроников о Сергее Есенине. 14.45 "Ниагарский водопад". 15.25 "Львы на арене". Цирковая программа. 15.40 "Подземный переход". Мультфильм. 16.00 Новости. 16.20 День музыки. 17.15 Клуб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18.00 Час мультсериала. "Остров сокровищ"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гонички динозавров" (Австралия). 19.00 Новости. 19.20 "Кумиры, кумиры...". Ирина Понаровская. 19.50 "Один на один". Ведущий-А. Любимов. 20.15 Клуб "Белый полугай". 21.05 Арнольд Шварценеггер и Шарон Стоун в фантастическом боевике "Вспомнить все". 22.55 Реклама. 23.00 "Воскресенье". 23.45 Реклама. 23.55 Программа. 24.00 Лучшие анимационные фильмы года. "Тарарин". 00.05 "Рейли-король шпионов". Сериал. 10-я серия. 01.05-01.35 "Любовь с первого взгляда". 02.50-03.35 Баскетбол. Чемпионат суперлиги. Мужчины. ЦСКА-"Автодорожник" (Саратов).

РОССИЯ

7.00 АТВ. 9.00 Вести. 9.20 Звезды говорят. 9.25 Наш сад. 9.55 Первый дубль. 10.25 Грош в квадрате. 10.55 Доброе утро, Европа. 11.25 "Сигнальный экземпляр". 11.35 Аты-баты... 12.05 Футбол без границ. 12.50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по шахматам. Г. Каспаров-В. Анад. 13.00 Музей кино. "Небо нашего детств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14.30 Киноср. Майжека. "Паразиты". 14.45 Горячая десятка. 15.00 Вести. 15.30 "Не вырубить...". 15.45 Домашний экран. "Бура над Ла-Манше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из сериала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миссара Метрз". Часть 2-я. 16.35 "Консолидация". 16.40 "Т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человек". 17.10 Реклама. 17.15 Киноср. повторного фильма. "Той весию, шо н...". 18.35 Реклама. 18.40 Клип-антракт. "Зачинко кофе с Ф. Киркороним". 18.45 Волшебный мир Диснея. "Чокнутый". "Новые приключения Винни-Пуха". 19.40 Реклама. 19.45 Шарман-шоу. 20.40 Киноафиша. 20.55 Реклама. 21.00 Вести. 21.20 Реклама. 21.25 Автомб. 21.30 У Ксюши. 22.00-22.05 Реклама. 23.55 Реклама. 24.00 Вести. 00.20 Премьера телегазета. "Нулевой допуск".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США). 01.55 Река времени. 02.00-02.45 Мастер-класс. Л. Долня.

ТАН

6.00 Муз. новости MTV. 7.00 "Телеброк". 8.00 "О разном". 8.20 Программа "Необы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человека". 9.00 Страна Мультландия. "Маулты". 10.40 Искатели приключений. "Глаз волка". 12.20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Индия на полях сражений". 14.00 "Телеброк". 15.00 Сильвестр Сталлоне в фильме "Рокки". 17.00 Чемпионат по рукошашному бою без правил. 1-2-й выпуски. 19.00 "Телеброк". 19.10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Исхандера Омарова "Человек. Экология. Здоровье". 20.00 Программа Светланы Задуминой "Третье открытие". 20.30 Программа Вячеслава Кувшишниково "В сиянии звезд". 21.00 Вечер комедии "Весенняя тузовка". 22.35 "Телеброк". 22.45 Мелодрама с участием Мелани Гриффит "Дикая штучка". 00.20 "Телеброк". 00.30 Фильм ужасов "Любовница дьявола".

КТК

09.00 Мультфильмы 09.35 Тележурнал "Жизнь" 09.55 Передача "Наш семейный доктор" 10.25 Коммерче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1.00 Чак Норрис в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м боевике "Одинокий волк Маквейд" 12.45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13.30 Комедия "Искусство жить в Одессе" 15.10 Концерт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15.30 Только на КТК. Проект "Открытие небеса" "Личное дело Анны Ахматовой" 16.35 Программа мультфильмов 17.20 Коммерче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17.55 Музы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18.55 Реклама 19.00 Совмест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независимых телестанций СНГ "Время местное". 19.30 Реклама 19.35 Коммерче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20.10 Реклама 20.15 Сериал "Детективы на полставки" 21.10 Реклама 21.15 Воскресный фильм. Мелодрама "Любовь живет" 23.00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 Реклама. 23.05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й боевик "Индия" По окончании коммерческий выпуск-2. Реклама.

Уважаемые телезрители КТК!

Программа Коммерческий вестник и Частное лицо три раза повторно выходят в эфир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аша информация может быть также размещена в бегущей строке, которая выходит в утреннее и дневное время каждый день.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в эфире КТК обращайтесь по телефону 32-35-51.

TOTEM

ПОНЕДЕЛЬНИК, 25 СЕНТЯБРЯ

8.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8.30 НТВ. "Сегодня". 9.10 НТВ. Час сериала. "Карл Великий". 1-я серия. 10.20 Лесли Нилсе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амые смешные рекламные ролики в мире. 11.00 Том Беренджер, Мими Роджерс в фильме "Тот, кто меня бережет". 13.20 "Информбюро". 14.00 Меломания "Doors". 14.30 Тележурнал "Немецкая волна". 15.00 Тех. перерыв. 17.45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18.00 Жан Луи Трентиньян и Анни Жирардо в фильме "Спасибо, жизнь". 19.45 Реклама, музыка. 20.00 Худ. фильм. 21.10 Спортивные программы НТВ. 21.50 Реклама, музык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5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23.15 Элзабет Тейлор в фильме "Пропски в стране чудес" (США). 01.00-01.35 НТВ. "Сегодня".

ВТОРНИК, 26 СЕНТЯБРЯ

8.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8.30 НТВ. "Сегодня". 9.10 НТВ. Час сериала. "Карл Великий". 2-я серия. 10.20 Тележурнал "Немецкая волна". 11.00 Эдди Лау в бромке "И льются слезы". 13.20 НТВ. "Самые гром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XX века". 14.00 НТВ. "Времечко". 14.30 НТВ. Тележурнал "Планета моя". 15.00 Тех. перерыв. 17.45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18.00 Мерил Стрип и Роберт де Ниро в мелодраме "Так начинается любовь". 20.00 Худ. фильм. 21.10 НТВ. "Самые гром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XX века". 21.50 Музыка, реклам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5 "Большой ринг". 23.10 Мир кино. Карен Янг и Клейтон Дей в фильме "Кэглиш берется за пистолет". 01.00-01.35 НТВ. "Сегодня".

СРЕДА, 27 СЕНТЯБРЯ

8.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8.30 НТВ. "Сегодня". 9.10 НТВ. Час сериала. "Карл Великий". 3-я серия. 10.20 Меломания. Вадим Казаченко. 11.00 Шоу Пени. Майкл Дж. Фокс в фильме "Жертвы войны". 13.20 "Рок-комментарий". 14.00 НТВ. "Времечко". 14.30 Тележурнал "Немецкая волна". 15.00 Тех. перерыв. 17.55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18.00 Патрик Свейт в мелодраме "Грязные танцы". 20.00 Худ. фильм. 21.00 В поисках приключений. 21.50 Музыка, реклам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5 Бодибилдинг. 23.10 Мишель Мерсье, Робер Оссейн и Жан Рошфор в фильме "Анжелка и король". 01.00-01.35 НТВ. "Сегодня".

ЧЕТВЕРГ, 28 СЕНТЯБРЯ

8.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8.30 НТВ. "Сегодня". 9.10 НТВ. Час сериала. "Карл Великий". 4-я серия. 10.20 Тележурнал "Немецкая волна". 11.00 Шоу Коннери в фильме "Всего лишь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13.20 НТВ. "Времечко". 14.00 НТВ. Час сериала. Худ. фильм "Охотник". 1-я серия. 15.00 Тех. перерыв. 17.45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18.00 Роберт Тейлор в историческом фильме "Айвиито". 20.00 Худ. фильм. 21.10 "Фавор". 21.50 Музыка, реклам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5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23.10 Наше новое кино. Светлана Рабова, Георгий Юматов и Александр Фатюшин в фильме "Заряженные смерти". 01.00-01.35 НТВ. "Сегодня".

ПЯТНИЦА, 29 СЕНТЯБРЯ

8.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8.30 НТВ. "Сегодня". 9.10 НТВ. Час сериала. "Карл Великий". 5-я серия. 10.20 "Фавор". 11.00 Арнольд Шварценеггер в фантаст. фильме "Бегущий человек". 13.20 НТВ. "Времечко". 14.00 Спортивные программы НТВ. 14.30 Тележурнал "Немецкая волна". 15.00 Тех. перерыв. 17.45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18.00 Жан Габен в фильме "Солнце бродяга". 20.00 Худ. фильм. 21.10 "Пуле-класс". 21.50 Музыка, реклам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5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23.10 Наше новое кино. Светлана Рабова, Георгий Юматов и Александр Фатюшин в фильме "Заряженные смерти". 01.00-01.35 НТВ. "Сегодня".

СУББОТА, 30 СЕНТЯБРЯ

9.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9.30 НТВ. "Сегодня". 10.10 Мультфильмы. 10.30 "Пулс-класс". 11.10 Шоу-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1.55 Леонид Быков, Михаил Ульянов и Петр Щербakov в фильме "Добропольцы". 14.00 Меломания: "Рондо". 15.00 Киномарафон "Мутанты черепашки ниндзя". 18.30 НТВ. "Куклы". 19.00 "Рок-комментарий". 19.40 Жан Марс в фильме "Железная маска". 21.10 "Информбюро". 21.45 Реклама, музык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5 РЕН ТВ представляет: "Дог-шоу". 23.05 "Вишневый сад". Кратк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В. Том 2 "Театр". 23.10 Муз. программа "Пилот". 24.00 Мир кино. Аль Пачино и Мишель Пфайфер в фильме Брайана де Пальмы "Лицо со шрамом" (США), часть 1-я. 01.00 "Намедни". 01.45 "Куклы". 02.00 Мир кино. Худ. фильм "Лицо со шрамом" (США). Часть 2-я.

ВОСКРЕСЕНЬЕ, 1 ОКТЯБРЯ

9.00 Программа, реклама, шейпинг, мультфильм, музыка. 9.30 НТВ. "Намедни". 10.30 НТВ. "Куклы". 11.10 "Информбюро". 11.55 Райф Ричардсон в историческом фильме "300 спартанцев". 13.55 Меломания: Шер. 15.00 Киномарафон. Майкл Йорк в фантаст. фильме "Не от мира сего" и Лу Даймонд Филипс в фильме "Портовая крыса". 18.25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19.10 "Тотем-плюс"-видео". 19.40 Джон Траволта в комедийном боевике "Чудо-специалист". 21.10 Тележурнал "Немецкая волна". 21.50 Реклама, музыка. 22.00 НТВ. "Сегодня". 22.30 Наше новое кино. Ирина Мальшева и Алпа Смухова в фильме "Женина с цветами и шампанским". 24.00-01.05 НТВ. "Итоги".

Уважаемые телезрители и радиослушатели "Тотема", по вопросам изготовления и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ращайтесь по телефонам 62-66-60, 63-36-55.

ТАШКЕНТ ТВ

**ПОНЕДЕЛЬНИК, 25 СЕНТЯБРЯ**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Новости. 19.10 "В старом дворце". Мультифильм. 19.20 "Чорраха" (перекресток). 19.55 Реклама. 20.00 "Ахборот" (рус.). 20.20 Реклама. 20.25 Футбольное обозрение. 20.35 Концерт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21.10 Вечерняя сказка. 21.25 Реклама. 21.30 "Ахборот". 21.55 Реклама. 22.00 "Пул калри" (пена дегер). 22.20 Чолпон. "Кеча ва кундуз". Видеофильм. 4-я часть. 23.25 Реклама. 23.30-23.55 "Ахборот".

**ВТОРНИК, 26 СЕНТЯБРЯ**  
8.00-10.00 "Ассалом, Узбекистон". 10.00 Чолпон. "Кеча ва кундуз". Видеофильм. 4-я часть. 11.05 Студия "Ешик". 11.30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12.00 Немецкий язык. 12.30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Литература. 13.00 "Колокольник". 13.30-15.30 "Год надежды". Видеоканал.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Новости. 19.10 Мультифильм. 19.20 Живые страницы узбекского кино. 19.55 Реклама. 20.00 "Ахборот" (рус.). 20.20 Реклама. 20.25 "Навоийхонлик". Литературная передача. 21.10 Вечерняя сказка. 21.25 Реклама. 21.30 "Ахборот". 21.55 Реклама. 22.00 Поэт Шомахмуд Шорахметов. 22.30 Чолпон. "Кеча ва кундуз". Видеофильм. 5-я часть. 24.00 Реклама. 00.05-00.30 "Ахборот".

**СРЕДА, 27 СЕНТЯБРЯ**  
8.00-10.00 "Ассалом, Узбекистон". 10.00 Чолпон. "Кеча ва кундуз". Видеофильм. 5-я часть. 11.30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12.00 Студия "Ешик". 12.40 Изучаем новый алфавит. 13.10 Сан ат гуначарли. 13.45-15.45 "Путь, выбранный нами". Видеоканал.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Новости. 19.10 Мультифильм. 19.20 К 25-летию линии интернета при ТашГУ. 19.40 Музыкальные минутки. 19.55 Реклама. 20.00 "Ахборот" (рус.). 20.20 Реклама. 20.25 Спортивные новости. 20.35 Махтумкули-сулар тили туркманнинг. 21.10 Вечерняя сказка. 21.25 Реклама. 21.30 "Ахборот". 21.55 Реклама. 22.00 Программы областных студий. 22.45 "Дом под жарким солнце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00.05 Реклама. 00.10-00.35 "Ахборот".

**ЧЕТВЕРГ, 28 СЕНТЯБРЯ**  
8.00-10.00 "Ассалом, Узбекистон". 10.00 "Девочка, хочешь сниматься в кино?" Худ. фильм. 11.20 Изучаем узбекский язык. 11.50 Бир улка-ки... 12.30 Указ и его исполнение. 13.00 "Природа-источник жизни". Кинопрограмма. 13.40-15.40 Видеоканал. Студия "Ешик".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Новости. 19.10 Фарзанд-умид кундузи. 19.40 Минуты поэзии. 19.55 Реклама. 20.00 "Ахборот" (рус.). 20.20 Реклама. 20.25 Мир искусства. 20.50 Лицом к лицу. 21.10 Вечерняя сказка. 21.25 Реклама. 21.30 "Ахборот". 21.55 Реклама. 22.00 Песни композитора К. Камилова. 22.40 "Невестка". Худ. фильм. 23.55 Реклама. 24.00-00.25 "Ахборот".

**ПЯТНИЦА, 29 СЕНТЯБРЯ**  
8.00-10.00 "Ассалом, Узбекистон". 10.00 "О том, чего не было". Худ. фильм. 11.15 Немецкий язык. 11.45 "Жараен" (процесс). 12.25 Газалхон ешиги. 13.00 Умр мазмуни. 13.30-15.30 "Ма' навият" (духовность). Видеоканал.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Новости. 19.10 Живые страницы узбекского кино. 19.55 Реклама. 20.00 "Ахборот" (рус.). 20.20 Реклама. 20.25 В кругу политических обозревателей. 21.00 Телефильм. 21.10 Вечерняя сказка. 21.25 Реклама. 21.30 "Ахборот". 21.55 Реклама. 22.00 "Туркестан-наш общий дом". Встреча с М. Шахановым. 22.45 Хофизлар хоншиклганда. 23.30 "Побег из тьмы". Худ. фильм. 01.00 Реклама. 01.05-01.30 "Ахборот".

**СУББОТА, 30 СЕНТЯБРЯ**  
8.00-10.00 "Ассалом, Узбекистон". 10.00 "Дороги жизни". Бахтияр Ихтиеров. 10.50 Наставления матери. 11.35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песни и танца "Гузаль". 12.05 Светофор. 13.05 Сельская жизнь. 14.05-16.05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Уйла. Изла. Топ". 19.45 Спортивные новости. 19.55 Реклама. 20.00 "Ахборот" (рус.). 20.20 Реклама. 20.25 "Ватадин яши ер улмас". Литературно-музык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21.00 Ново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на англ. яз.). 21.10 Вечерняя сказка. 21.25 Реклама. 21.30 "Ахборот". 21.55 Реклама. 22.00 "Мастера искусств". Я.Абдуллаева. 23.10 "Тунги елгу".

**ВОСКРЕСЕНЬЕ, 1 ОКТЯБРЯ**  
8.00-10.00 "Ассалом, Узбекистон". 10.00 "Радуга". Кинопрограмма для детей. 11.00 Студия "Ешик". 12.00 Музыкальные строки. 12.45 Цирк, цирк, цирк. 13.30 Кушкларим сизга армугон. 14.00-16.00 "Марияфат" (просветительство). Видеоканал. 18.55 Программа. 19.00 "Томоша". Новости для детей. 19.15 Дилдан куйлаб, уйна кубнаб. 19.55 Реклама. 20.00 "Панорама" (рус.). 20.30 Реклама. 20.35 Ойина жахонда. 20.55 Поэт Юлдаз Абдуллаева. 21.25 Реклама. 21.30 "Хафтанома". 22.00 Реклама. 22.05 Дехкон даладан кайтганда. 22.50 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00.50 Реклама. 00.55-01.25 "Хафтанома".



ПАНОРАМА

МОСТЫ ИНТЕГРАЦИИ И ДРУЖБЫ

Визит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Казахстан и его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Нурсултаном Назарбаевым в Уральске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дальнейшему укрепл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Темой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и статус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и совместное освоение Аксус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конденсат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прокладка нефтепровода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вух стран, дальнейш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механизме создаваем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ряд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подчеркнул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Виктором Черномырдиным, что возникающие проблемы должны решаться на паритетных началах за столом переговоров.

Следом состоялся визит в Алматы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Леонида Кучмы. Переговоры двух президентов -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 и Леонида Кучмы также посвящены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АРАЛУ -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МОЩЬ

Проходящая в Нукусе (Узбекиста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д эгидой ООН государств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проблемам Ар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должна наметить совместные действия. Перед вылетом в Нукус из Ташкента, где наш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л беседу с Исламом Каримовым,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сообщил, что Европейский банк решил выделить 4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фонд помощи Аралу.

Конференция пытается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и оздоровления рек Сырдарья и Амударья - осно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ритока вод в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а также оздоровления среды обитания этого обширного региона.

МАГИСТР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Ну, вот и наша столица сподобилась, и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личность, которой присвоено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звание (приравняемое нашему кандидату наук). Сделала это комиссия по эквивалентности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рпорации "Инкорвуз" при ЮНЕСКО, к которой недавно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Россия. Это Надежда Николаевна Беркова, учительница, которая вот уже 12 лет ведет уроки по киноискусству, и сейчас преподает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N 120. Что среди педагогов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магистр, это уж точ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олучено звание по совокупности следующих факторов, помимо стажа: двух дипломов (оба красные) - об окончании филфакультета КазГУ и киноведения ВГИКа. Именно последний вуз вошел в список вузов по кино и театру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Помимо этого Надежда Николаевна автор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убликаций по кинотеме в масс-медиа не только Казахстана. Она является и нашим автором, чем мы и гордимся, присоединяясь к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оздравлениям.

КАЗАХСТАНЦУ - ДИПЛОМ КИТАЯ

В ма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радио Китая объявило конкурс на лучшую публика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50-летию Победы над немецким фашизмом и японским милитаризмом. В нем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етеран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тарейший журналист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а Менгали Мусин. Очерк о японской кампании августа 45-го года он назвал "Три встречи с Китаем". Жюри присудило ег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Диплом II-й степени и ценный приз.

"Какая нам нужна газета?"

Редакция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относится к мнениям наших читателей о содержании и оформлении "Коре Ильбо", ждет новых суждений, предложений читателей об улучшении газетных полос.

Сегодня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мнение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переводчица Галины Петровны Тен, живущей в городе Уштобе.

ТЕН Г.А.: - Газету "Коре Ильбо" я жду с большим нетерпением. Читаю, как говорят: "от корки до корки" не только сама, но и все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соседи. С интересом и вниманием прочитываем материалы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странах СНГ и за рубежом. Содержательны и интересны очерки и высказывания Николая Петровича Цоя и Михаила Алексеевича Кима из поселка Зеленый бор Кокчетав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сто как чудо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факты 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е жителей этого поселка. Радует такая забота н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там у меня

ес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друзья и знакомые. Главное, что есть решение этой трудной проблемы -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учителей,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старелых людей, но и вообще всех жителей поселка. Этот опыт мог бы пригодиться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о 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оддержат его не на словах, а делом.

Привлекают сообщения из истории Кореи, материалы об обычаях и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цев, рубрика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и даже астропрогноз, хотя он почти никогда не совпадает с реальными событиями. Материалы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

ДЕЛЕГАЦИЯ КНДР В АЛМАТЫ

Прибывшую в Алматы делегацию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Д Ли Ин Гю принял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азахстана Касымжоларт Токаев. Темой бесед был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связей КНДР и Казахстана, расширение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Токаев отметил, что Казахстан прида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обрососед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всеми странами и готов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силиям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ого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КУШЕНИЕ НА ОЛЕГА ЛОБОВА

По дороге от аэропорта "Северный", где ночует секретарь СВ Олег Лобов, в Грозный совершено покушение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Чечне и сопровождавших его Н.Семенова, С.Хаджиева и У.Автурханова. Проезжая по мосту через реку Нефтянка между машиной Олега Лобова и кортежем сопровождавших его машин произошел мощный взрыв фугасного заряда с дистанцио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Разрушено два пролета моста, контужен руководитель секретариата СВ Юрий Колобаев,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легко ранены осколками стекла.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по переговорам с чеченской стороной не состоялось.

Журналистам Олег Лобов после происшествия заявил, что подобные методы могут подорвать хрупкое начало мирной жизни, но он сделае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эт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Процес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дготовка к зиме, обеспечение людей жильем, теплом, медицинскими и прочими услугами будет главной нашей задач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РИБАВКА К ПЕНСИЯМ И ЗАРПЛАТАМ

Размер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и пенсии с 1 октября будет увеличен до 300 тенге. Это связано с инфляцией и понижением уровня жизни многих категорий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и пенсионеров. Новый перерасчет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 соглас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Указ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НЕМ НУЖНО ДОРОЖИТЬ"

60 лет назад молодой слесарь-электрик Метростроя, участник самодеятельного театра рабочей молодежи уверенно переступил порог театра-студии Арбузова. Это был Зиновий Гердт, теперь один из любимейших актеров на всем пространстве бывшего СССР, популярный не только по фильмам. 36 лет отдал он театру кукол С.Образцова, где переиграл черт всех мастей и рангов. В телеспектакле "Доктор Фаустус" М.Козакова он сыграл Мефистофеля. Друзья-актеры и сейчас называют его "великим чертом". Сегодня по всему его дому разбросаны киносценарии. Играть-то хочется, но приходится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ролей, даже за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Именем нужно дорожить". Зиновий Гердт уже немолод и не совсем здоров, но полагает так: "Об этом знать никому не нужно. Моя подруга Рина Зеленая считала, что это неприлично. Сегодня Россия вызывает боль, переломная пора".

БАЛКАНСКИЙ ПЕРЕДЕЛ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товская операция "Освобожденная сила" была отложена на три дня с начала прошлой недели,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ербам вывезти свои тяжелые орудия за двадцатикилометровую зону. По условиям ультиматума НАТО сербы обязаны удалить 2/3-их своих вооружений и да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о не обстреливать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ООН, а также бесприпятственно пропускать гуманитарные грузы через подконтрольные им территории. По сообщениям наблюдателей НАТО и ООН сербы вывезли примерно 150 орудий и танков. Если по истечении трех суток не будет подвижек с вывозом орудия от Сараево, НАТО возобновит авианалеты на сербские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Тем временем хорваты и мусульмане продолжили свое наступление и заняли до 10 процентов территории, ранее контролируемых сербами, захватив ряд небольших городов. До ста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ерб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бросив дома и скарб бегут в Баня Луку, где и без того тесно от беженцев. Но и здесь нет гарантии, что сербы удасться отстоять город. Хорватско-мусульманские войска находятся от 30-ти до 15-ти километров от города. Из различ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оступают сообщения об убийствах и насилии мирных сербов. Их дома попросту жгут.

Похоже, что организаторы авиабомбардировок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естественный" передел Босн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звращения мусульманами и хорватами территорий ранее захваченных сербами. Тогда, по их мнению,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и подписать соглашение о разделе по плану, предложенному контактной группой: 51% - сербам, 49% - хорватам и мусульманам. Этот вариант не устраивает только сербов.

В ЧЕЧНЕ ГОРЯЧО, В МОСКВЕ СПОКОЙНО

Прошедше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заседание членов бывшего парламента Чечни, на котором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Джохар Дудаев, определило длящийся уже пятый год конфлик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Чечней, как войну Росси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Ичкерия. "Пока не будут выведены все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за пределы Чечни - никакие выборы и референдумы невозможны", - заявил Джохар Дудаев.

Между тем нападения на места дислокации федеральных войск и отдельные блокпосты не прекращаются.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погибло 36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и 58 ране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чеченцев на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Аслан Масхадов заявил журналистам, что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могут в любой момент возобновиться, если не будет найдено продуктивное решение.

УЛЬТИМАТУМ ТАЛИБОВ

Пятидневный срок для сдачи Кабула объявила военн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алибан" президенту Афганистана Раббани и генералу Достуму, чьи войска поддерживают нынешний режим правления. Отсчет ультиматума на начался 20 сентября. По истечении этого срока талибы начнут массирован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Кабул, куда уже подтянуты их войска.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овинций Афганистана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талибов.

не и за рубежом я вырезаю и использую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ах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Газета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а знач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ее, разнообразнее по публикуемым материалам, их подаче, стала современной. Это обогащает сведениями о многообразных событиях в мире, интересными фактами и новостями из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ей науки.

Но меня, как преподавателя, привлекают, прежде всего, материалы, родственные моей профессии. Я хотела бы видеть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как идет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где проживают корейцы. Как у них идет это дело, какие успехи? Может, что-то полезное у них можно позаимствова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у нас? Вообще, хотела бы, чтобы газета стала координатором наших общих проблем.

Алматы - Уштобе

## НЕЗАБЫВАЕМАЯ ВСТРЕЧА С КОРЕЕЙ, С РОДНЫМИ...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и патриотов Кореи "Гуко По хунче" и благодаря пастору методической церкви Ли Ин Ги, взявшему на себя все хлопоты по оформлению документов, а также самими Кан Мирам, состоялась моя поездка с мужем в Сеул на юбилейные торжества по случаю 50-лет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Волнение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впервые ступившего на землю предков, объяснимо и понятно. И все же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 полной мере понять ощущения после многочасового перелета, когда ступаешь на землю Родины, вдыхаешь влажный теплый воздух, ощущаешь тепло встречающих тебя людей, может понять только человек, переживший подобное... Какая она - Родина? С первых мгновений нас не покидало чувство своей причастности к событиям юбилейных торжеств. Во многом потому, что такого обилия информации о своем дедушке Ли Донхи я никогда раньше не знала и не предполагала. Такого уважения и почта к его имени не встречала.

Мой отец - Ли Ён Ир - единственный сын Ли Донхи (кроме него у Ли Донхи было три дочери), написал о своем отце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ую повесть, которая увидела свет в Сеул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лагодаря покойному Ко Сон Му. В нашем семейном архиве хранятся некоторые материалы моего отца. Но такого внимания и живого интереса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жизненного пут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не ожидала. Студенты исторических вузов изучают и много знают о Ли Донхи, знают больше, чем мы, его родные. Мне подарили книги, рукописи, статьи, фотографии авторы не только из Сеула, но из Японии, Китая, и с Гавайских островов.

Вс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от напряженной офи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ероприятий заняли интервью журналистам газет, радио, телевиде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биографии моего деда.

При посещении Музе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неожиданным для меня было увидеть восковую скульптурную группу членов Временного эмигран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 и мой дедушка Ли Донхи. Как живые стоят и сидят эти исторические личности, участники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и. Прият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было увидеть там, в музее, портреты дедушки.

Но самым волнующим и торжествен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о награждение посмертно Ли Донхи Орденом Славы II-й степени на многотысячном празднике 15 а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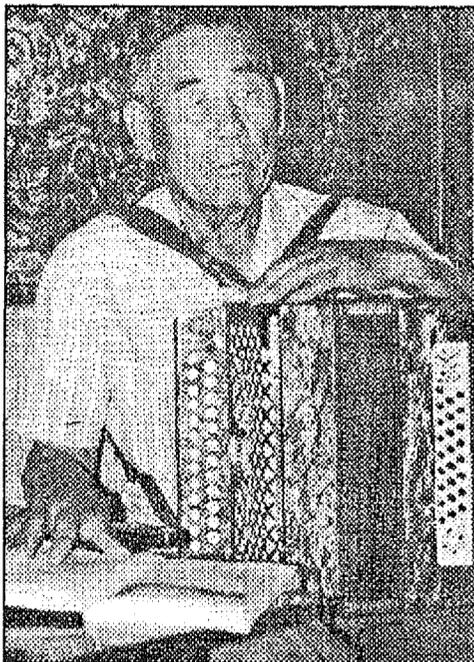
густа на площади Республик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Ён Сам вручил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в моем лице потомкам Ли Донхи, всем, кому дорого признание заслуг перед Кореей.

Чувств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не покидало меня 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на президентском приеме во дворце, где президент и его супруга принимали ветеранов и потомков патриотов Кореи,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отвечала на вопросы Ким Ён Сама. На память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 вмест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и его супругой.

И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в Сеуле - там я встретила с двоюродным братом О Досеном - внуком Ли Донхи. Он, сын одной из дочерей моего деда Ли Донхи. Всю жизнь мой отец, никто из родных не знали о судьбе двух старших дочерей моего дедушки. И вдруг такая встреча! О Досен был приглашен на торжество из Шанхая. Мы с ним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на встречу с земляками-тонченцами, которые хотели узн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о потомках Ли Донхи. Земляки подарили необыкновенно ценный подарок - потомственную книгу-родословную всех тонче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Это объемный фолиант,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цветными фотографиями всех знаменитых и не знаменитых тонченцев, прибывших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обосновавшихся на Юге.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нам, что мой прадед Ли Синчу и две мои тети - Ысун и Инсун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за заслуги в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Все это изучается и исследуется. Жаль, что это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внимание и почет, который оказывали мне сестры и особенно земляки-тонченцы, не может разделить со мной отец - Ли Ён Ир... Если бы он дожил до радостных дней признания заслуг Ли Донхи... Он всю жизнь мечтал побывать на родине - в Инчхене... Но время беспощадно.

Я вернулась домой в Казахстан, полная незабываемых впечатлений, признан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 юбилейных торжеств за оказанную высокую честь и благодарную память людей Родины.

Людмила ЛИ



Я попросил президента филиал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Жамбыл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шем городе Людмилу Львовну Пак (она же секретарь городского маслихата - собрания депутатов) рассказать о нем.

- Это Александр Санхонович Пак, - начала Людмила Львовна. - Впрочем, мы с ним однофамильцы. Он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в нашем городе более тридцати лет - с 1962 года. Работает и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нимается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и 73 года. Он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нашей ассоциации, принимает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ее работе, возглавляе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сектор. По его инициативе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участии создан корейский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песни и танцев (он сам в нем играет и поет), который выступил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войны с концертами на праздниках "Наурыз" и "50-летия Побе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городе проводятся занятия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двух группах - старшего и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ов. В младшей группе занятия ведут Александр Санхонович и Огай Владимир Чимугович.

Хотя мы еще не имеем сво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но не раз проводили выставку-продажу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на праздниках. Вопрос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аходится в стадии решения, но уже на небольшом участке земли выращиваются для будущей кухни овощи-бахчевые культуры. И все эти дела проводятся с его участием.

- Александр Санхонович - участник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Президиума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труда 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ричем самый активный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 так отзывался о нем и.о.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и труда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Туезов. - На него возложены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жилищно-бытовой комисси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жилья, ремонтом домов, квартир, сантехники и прочим.

- Это ведь нелег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нагрузка, тем более в наше время, когда везде недостаток. Спрашивается ли?

- Да. Все делает вовремя,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от полюбуемся его работой. Мы перед праздником 50-летия Победы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 265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Да вы же сам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 добрую половину из них. Решили сделать фотостенд и уже вывесили 80 фотографий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Остальные фотографии тож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появятся там. К 50-летию Победы он возглавлял комиссию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азднику и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ся со всеми задачами.

Он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хора ветеранов при городском Совете,

ЖИВЕТ СРЕДИ НАС ЧЕЛОВЕК

## "МОИ ГОДА - МОЁ БОГАТСТВО"

Человека, о котором пойдет речь, я знаю давно. Живем вместе в одном городе. Часто видел его в здании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сборах в Совете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 городском Совете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труда 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Это вызвало у меня определенный интерес к этому пожилому, не по возрасту энергичному, бодрому, подвижному человеку.

играет в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м ансамбле. На его счету много полезных дел. В 1993 году он вырастил для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арбузы, дыни и огурцы, которые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участникам войны через наш магазин "Ветеран". Много добрых слов было сказано ветеранам в его адрес. Больше бы нам таких активистов!

Вот мы вдвоем сидим в его квартире, аккуратной, чисто убранной. Разговор не клеится. На мои вопросы отвечает неохотно, односложно. Ожидается разговор, когда я спросил о его родителях. (Он очень гордится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 Отец мой - начал он свой рассказ, - участник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евал в партизанском отряде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самураев. Он имеет значок "Ударник тридцатых годов" (в то время значок "Ударник" было самым высоким).

В 1937 году нас, как и все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переселил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везли целым колхозом из 64 семей в село Дунгановка Джамбул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м селе на улице, которая называлась 2-я Дунгановка, а нас и выгрузили, ранним морозным утром 13 ноября 1937 года. На этой улице жили в основном казахи. (Когда мы ехали в товарняке, пошли по вагонам слухи о том, что нас везут в Киргизию, где живут киргизы-людоеды, которые охотятся особенно на детей). Мы сгрудились в кучи и не знали,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У моих родителей было восемь детей, один меньше другого. Мне, старшему, было 15 лет. Обычно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многодетные. Все сидели молча, боялись двигаться, а из домов никто не выходил и все смотрели на нас из окон. Оказывается, как потом стало нам известно,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казахам сказали, что привезут к ним корейцев-людоедов.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одни "людоеды" на улице, другие - из домов смотрели, боясь друг на друга.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из ближайшего дома вышел мужчина небольшого роста в возрасте 50-60 лет, подошел осторожно и на расстоянии оглядел взором, затем подошел к нашей семье и, жестякулируя руками, что-то стал говорить моему отцу. Дети испуге прижались к матери. Было понятно, что он приглашал отца в дом. Но отец не двигался с места, смотрел на мать, на меня. Мать тоже поняла, что он зовет отца домой, но тихим голосом, категоричеки возражала. Он ушел обратно домой. И тут над степью поднялся такой тихий шум, как в пчелином улье, каждый по-своему истолковывал поступок этого незнакомца. Он опять подошел к нашей семье и, более смело, взяв за руку отца позвал его, указывая на дом. Отец встал и позвал меня с собой. Какой был страх в глазах у матери, она даже закрыла рот рукой. Но мы все-таки вошли с ним в дом. Дом

был низенький, из трех комнат, входная дверь как бы в прихожую, где стоит маленькая печь, влево и вправо - комнаты. Такой дом казахи назывались "Коржун-Там".

Хозяин завел нас в левую комнату, видно только что чисто убранную. На земляном полу постелена кошма, на ней алаша (палас, как потом мы поняли), на них круглый стол, рядом стоит кипящий самовар от которого поднимался дымок. Он пригласил нас сесть на постеленные вокруг стола узорчатые матрасики с подушками. Мы стоим. Тогда хозяин взял меня за руку и повел на улицу к своим, чтобы они тоже вошли в дом. Кое-как уговорил мать с остальными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Мы еле разместились за круглым столом, ибо нас было 10 человек. Началось чаепитие на незнакомой "чужой" земле, в доме "людоеда".

Первая чашка горячего ароматного чая с молоком, сахаром, вкусовой лепешкой "габанин" согрели наши души, тела и сердца, исчезли страх, боязнь, недоверие к этим незнакомцам. Начался непринужденный разговор, каждая сторона старалась как можно понятнее объясниться. После чая хозяин повел меня на улицу, показал на наши вещи, сам взял один ящик и пошел домой. Перенесли мы своей нехитрый скарб, остались жить у этого доброго, гостеприимного человека. Каково было удивление у остальных корейцев, когда мы вселились в этот дом. У них исчез страх и они сами пошли по домам, просить жилье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м помогал наш первый друг - хозяин на новой неизведанной земле. Жаль, что я не помню фамилии и имени этого человека с большой буквы.

Перезимовали, а весной отец снял квартиру около 40-й Мельницы (ныне "Онерпаз") у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ой райводхоза Давыдова Гаврилы. Недалеко от них, в Пулат-Коши была начальная русская школа, куда мы ходили учиться. Я с седьмого класса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пошел в четвертый класс русской школы.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мы начали терять свой язык, свою культуру, обычаи, традиции и не по своей воле "обрусели" и стали сегодня русскоязычными.

Однажды отец говорит мне: "Надо было тогда, хоть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научиться по-ихнему говорить". Откуда я знал, что будем жить среди них.

Помню, была суров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зима 1931 года. Мы жили в г.Хабаровске, недалеко от завода "Дальсельмаш". Привезли и заселили в наспех выстроенные солдатами бараки из досок. Как тогда говорили - "привезли киргизов". Потом, уже живя в Казахстане, я узнал, что это были казахи из рода аргыно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енные из Казахстана.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15)

## Генеральному директору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газетно-журн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Дауир" Январбеку Сагимбаевичу ТЛЕВЛЕСОВУ 60 лет.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т Вас с 60-летним юбилеем.

Мы знаем и ценим Вас, как внесшего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полиграф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оказывающего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нашей газете в условиях перехода к рынку. Мы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больших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Редакция "Коре ильбо"

# ПРАВКИ N 21 Информация Реклама

##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Американская культура сравнительно мол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многими европейскими, азиатскими или ближневосточными культурами. Американцы оказали знач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стили 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во все мире.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XX столетия иногда называют "эрой переговоров", она совпала с ростом влияния США на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ел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мериканцы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элемент демократизма и прагматизма в практику делового общения. Что ж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типичные американцы?

Американцы - личности.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и права личности -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американца. Это качество можно расценивать как проявление эгоизма, но оно заставляет американцев относиться с уважением к другим личностям и настаивать на самостройности.

Он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ы и независимы.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американцы привыкают "крепко стоять на своих ногах", т.е. надеяться только на себя. Американцы - прямые люди, ценят в людях честность и открытость, быстро переходят к сути разговора и не тратят время на формальности.

Американцы не любят чопорность, предпочитают удобную, повседневную одежду, обращаются друг к другу просто, неофициально, даже если между собеседниками 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и обществ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Американцы обожаю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очень ценят достижения, рекорды, постоянно соревную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Хотя такое поведение для них естественно, со стороны оно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властным, навязчивым.

Американцы дружелюбны, но по своему. У американцев дружба редко бывае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в ней больше прикладных моментов. Они менее постоянны, ч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и они не любят зависеть от других людей. Они "ранжируют" дружбу и выделяют "друзей по работе", "друзей по спорту", "друзей по отдыху", "друзей семьи". Однако американцы тоже могут быть верными и преданными друзьями.

Американцы задают много вопросов. Часть вопросов американцев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элементарными и прямолинейными. Вам могут задать очень личные вопросы. Так обычно проявляется их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Американцы часто считаются материалистами. "Успех" часто измеряется количеством заработанных денег. Однако среди американ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достаточн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твергают такой подход.

Американцы энергичны. Это общество отличается высокой активностью, движением, переменами. Американцев раздражает тишина. Они не любят перерывов в беседе. Они лучше говорят о погоде, чем делают паузу в разговоре.

Деловой американец по своему характеру не мелочен и не педантичен. Но он понимает, что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любого дела - нет мелочей. Поэтому к переговорам он готовится тщательно, с учетом всех элементов,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ит успех дела. Непременным качество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бизнесмена является соблюдение трех правил: анализировать, разделять функции (обязанности), проверять исполнение. Эти правила считаются условием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пециализация - это девиз, без которого не начинается ни одно дело.

Американцы берегут время и ценят пунктуальность. Они пользуются ежедневниками и живут по расписанию. Они точно приходят на назначенную встречу.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от Вашингтона до Востона) этому правилу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следуют - опоздания недопустимы и не могут быть ничем оправданы, а на западе страны к этому относятся гораздо терпимее. Переговоры могут быть очень короткими - от получаса до часа и, как правило, идут один на один.

Прагматизм американцев проявляется в том, что при деловых беседах,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они концентрируют свое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е, подлежащей обсуждению, причем стремятся выявить и обсудить не только общие возможные подходы к решению, но и детали, связанные с реализаци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деловом общении американцы энергичны, настроены на интенсивную работу.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вс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существующая в США.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в детях одобряется напористость, умение ставить и добиваться целей, жестко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представляемых ими компаний.

(Окончание следует)

## ПРАВИЛО 10. ЗАНИМАЙ ДЛЯ РАЗВИТИЯ, А НЕ ДЛЯ БЛЕФА

Множество коммерческих фирм сгинуло, потерпев банкротство, потому что не придавали значения этому Правилу. Они не отличали Развитие от БЛЕФА.

Развитие означает рост действительных масштабов бизнес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блеф состоит в приукрашивании его.

Развити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наращивать размеры и 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ь бизнеса, когда есть заказы на будущее. Блеф ж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увеличивать престиж и производить впечатление.

Если владелец типографии обнаружил, что ежегодно теряет заказы на 4000 фунтов,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свежей прессы, он должен взять кредит и купить прессу.

Если ювелир увидел, что мог бы продавать больше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если бы имел их больший запас, он должен взять кредит и купить больше бриллиантов.

Существует такая вещь, как ПРИНУЖДЕНИЕ роста. Растущий бизнес - это как растущий ребенок. Он не может все время оставаться в колыбели. Он должен иметь большее жилье.

В отличие от этого блеф - это, в сущности, только видимость. Он декоративен. Это то, что мы хотели бы иметь, а не то, что н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но.

Приобрести зонтик - эт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а отдать деньги за трость с золотым набалдашником - это сумасбродство.

Никогда не нужно занимать деньги, пока ты не уверен, что их расход не только окупит себя, но и принесет хорошую прибыль.

Если занимаешь 10 000 фунтов под 6%, надо сделать на этих деньгах не менее 16% прибыли.

Правильно поступать, когда берешь в долг, чтобы купить ботинок. И ты не прав, занимая для покупки гетр.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мне доводилось посещать небольшие надрывающиеся от работы фабрики и магазины, скудно оснащенные машинами и друг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ладельцы которых везли меня обедать, однако, в шикарных автомобилях.

Как часто мне хотелось сказать: "Вместо твоей машины лучше было бы купить пару новых станков".

Довольно часто я встречал людей, которые жили в прекрасных домах, их буфеты ломались от столового серебра, а в их офисах не было даже нормального отопления и освещения.

Если бы я был владельцем одной из таких фабрик, фабрик, борющихся между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я бы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спал бы в офисе на досках, подкладывая под голову простой мешок вместо подушки и укрываясь плащом вместо одеяла. Я бы сам готовил себе еду на керосинке, сэкономил бы каждый год по 75 фунтов и вкладывал их в бизнес.

Потом, когда у меня скопилось бы достаточно имущества, я взял бы максимальный кредит и все, до копейки вложил бы прямо в дело.

Только таким путем можно положить должное начало бизнесу.

## ПЕРБЕРТ НЬУТОН КЭССОН 12 ПРАВИЛ ОБРАЩЕНИЯ С ДЕНЬГАМИ. КАК ПОЛУЧАТЬ ПРИБЫЛЬ

- создать жизнеспособное, устойчивое дело, которое не рухнет при первой же встряске.

Слишком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обогоняют себя и доводят до нищеты свой бизнес. Их жены и друзья постепенно вводят их во все большие расходы, пока наконец изможденный бизнес не испускает дух.

Среди тысячи людей не найдется человека, подобного Джону Макинтошу из Галифакса, который, даже сделавшись крупнейшим в мире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конфет, продолжал жить скромно, в небольшом коттедже, на 30 фунтов в год.

Каждый крупный бизнесмен, начиная свое дело, думал сначала о нем, а потом уже о себе. Иногда, в молодые годы, промышленники спят в пехах, торговцы - под прилавками своих магазинов, фермеры почуют, где придется - в чучугах, в поле. Точно также, как генерал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умает о своих солдатах, так и бизнесмен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ботится о своем бизнесе.

Словом, нужно быть в определенном смысле слова спартанц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чав с нуля,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сделать состояние. Легкой дороги здесь нет, кроме тех случаев, когда бизнесмену улыбнется удача.

И нужно избегать показухи как в делах, так и в личных отношениях.

Главное везде и всегда в бизнесе - это не то, какое он производит впечатление, а то, какую он производит прибыль.

Лучше иметь процветающее дело на катке или в конюшне, чем убыточное - в здании из стекла и бетона.

Удвоение вывески не удваивает бизнес. Фактически это увеличивает бизнес только на 30-40%.

НОВЫЕ ЗДАНИЯ! Вот на чем прогорают десятки фирм.

Несомненно, что бизнес нужно делать, имея хорошую крышу над головой, но исти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здание имеет гораздо меньшее значение, чем мы ему придаем.

Например, фирма, имеющая сверкающее здание на центральной улиц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е дала прибыл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невзрачный убогий дом, в котором размещается Английский банк,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центром мировых финансов.

Спроси любого опытного бизнесмена, не является ли любое новое здание ничем иным, как разочарованием.

Да разве любой из нас не мог бы назвать не менее тре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терпевших крах в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из-за того, что ухлопали кучу денег на новые здания.

Я знаю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рех торговцев, готовых отдать год своей жизни за то, чтобы выехать из

новых зданий и снова оказаться на старом месте.

Когда твоя дочь выходит замуж за молодого амбициозного архитектора, будь осторожен. Вскоре тебя начнет одолевать зданиемания, а это серьезная и дорогостоящая болезнь.

Что касается лично меня, то я не помню более двух случаев, когда я рекомендовал приобретать новые помещения.

Почти всегда я обнаруживал, что фирма не использует все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меющегося у нее здания. Из-за чего же тогда, собственно, строить новое?

Конечно, новое здание может быть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Если так, то можно строить. Но ну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чт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а 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устить пыль в глаза.

Одна из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ошибок - наполнить бизнес блефом. Час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фирма возводит новое здание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том обнаружить, что это мавзолей для погибшего бизнеса.

Нередко американск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компания строит величественное мраморное здание для вокзала, а потом выясняется, что это не добавило ни гроша в приходные статьи.

Зачем все эти суперстанции и супервокзалы? Их не строят для автобусов и трамваев, которые, кстати, перевозят больше пассажиров, чем люб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Существует также такая вещь, как выбрасывание денег на изысканный офис и усложненный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штат. Это все надстройка. Это увеличивает расходы, а не прибыль.

Каждый бизнес, расширяясь, подвергается опасности стать декоративным на своей верхушке. В каждом бизнесе накапливаются как людские, так и машинные ИЗЛИШКИ. Но нельзя занимать ни гроша на оплату этих излишков.

Все взятые в кредит деньги должны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одуктивно. Если этого не происходит, то эти деньги приносят больше вреда, чем пользы, прививая привычку потакания своим собственным прихотям.

Бизнесом побуждают заниматься Ее Величество ПРИБЫЛЬ и Ее Величество ГОРДОСТЬ. Если берешь кредит для ПРИБЫЛИ - все в порядке. Но если занимаешь для ГОРДОСТИ - твой бизнес в опасности.

Взятые в кредит деньги либо возносят, либо низвергают тебя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как ты их используешь. Вот почему нужно занимать для РАЗВИТИЯ, а не для БЛЕФА.

##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1.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Статья 39. Место нахожд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1. Местом нахожд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признается место нахождения его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его органа.

2. Место нахожд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указывается в его учред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с записью полного почтового адреса.

Статья 40. Учредители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1.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может учреждаться одним или несколькими учредителями.

2. Учредителями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могут быть собственники имущества либо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ими органы или лица, а в случаях, специа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актами, иные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При этом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которые владеют

имуществом на праве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ведения или опе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огут быть учредителями других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с согласия собственника или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им органа.

Статья 41. Учред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1.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осуществляе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основании устава, либо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договора и устава, либо только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договора, если иное не оговорено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актами. В случаях,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актами,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не являющееся 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мож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основании общего положения об организациях данного вида.

2. Учредительный договор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заключается, а устав утверждается его учредителями. Учредительный договор не заключается, если 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учреждается одним лицом.

3. В учредите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должны быть определены предмет и цели деятельности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Учредитель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оператива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едмет и цели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согласно учредителей могут быть включены и другие условия.

5. В уставе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определяются: вид организации, ее наименование,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полномочия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порядок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их компетенция, режим работы, порядок образования имуще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и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дохода, условия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екращ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В уставе определяются такж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ом (организацией) и учредителями (учредителем),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ее трудовым коллективом. В уставе могут содержаться и другие положения, не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Полоса подготовлена  
коммерческим центром  
"СНР"

■ **НОВОСТИ**

ТОКИ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чипы"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чинают уверенно наступать на японский рынок. За первые 6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в общем объеме импортируемых Японией интегральных микросхем, без которых сегодня не обходи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ни одно электро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долю Южной Кореи пришлось 27,8 процентов.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1990 году на долю Южной Кореи приходилось менее 9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импортируемых Японией "чипов". Всего з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этого год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на Японские острова было ввезено "чипов" на сумму в 109 млрд. иен (1 млрд. долларов) - на 60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первые 6 месяцев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УЛ. Южная Корея заложит за два-три года основы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клубу ведущих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стран мира, если ее экономик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расти нынешними темпами, а цены останутся стабильным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сегодн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Ён Сам на встреч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в Голубом дом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ал указание члена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инять меры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продукции мелк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траны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в рамках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реднего звена. "Стабильный и постоянный рост показателей небольших компаний, - сказал Ким Ён Сам, - укрепит баз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целом".

Для оптимистических прогнозов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носительн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есть все основания.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у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Хон Чэ Хен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ит в этом году 9 процентов. Он отметил на этом же совещании в официальной резиден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что ожидается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троите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и увеличение част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В то же время расширение экспорта 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в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сколько замедли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техн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индустрии и улуч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интересах укрепления пози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в конкурентной борьб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асштабе.

Нехватка рабочих рук остается хрон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ой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и по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щет пути решения этого вопроса.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труда Чин Нюма,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тся в жизнь план привлечения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женщин, граждан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инвалидов.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также вариант частич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качестве промышленных рабочих и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почасовой работы.

ИТАР-ТАСС

**ТАКАЯ  
ИЗМЕРЕННАЯ  
ЖИЗНЬ**

*Тихон Лукич Цой прожил интересную, полную событиями и испытаниями, жизнь. Он участвовал в двух войнах -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в войне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С боями прошел Украину, Венгрию, Польшу, Австрию, брал Берлин, помогал восставшей Праге и освобождал землю своих предков -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н окончил четыре класса в селе под Сучаном. В 1929 году из Харькова на каникулы приехал его двоюродный брат. Он же уговаривал: поедом на Украину. Послушался. 16-летним паренком приехал в Харьков, устроился рабочим на завод "Серп и молот", вечером учился на рабфаке. Затем окончил Одесский землеустроительный институт. Но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долго не работал. Люди из села убежали в города. С кем пахать землю? И Тихон решает стать кадровым военным - поступает в Киевское артиллерийское училище имени Лебедева. Незадолго до окончания его отчисляют. Это случилось в 37-м. Написал письмо Ворошилову - не помогло. Что ж, надо было жить. И Тихон преподает четыре года математику в одной из школ Новоарханг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Одесской области. Женится 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е Валентине Гашпоренко. Сын Володя у них родился... Потом - война.

Он мог командовать батареей. Но ему не поверили - документов полагающихся при нем не было. Они хранились в военкомате. А военкомат был сожжен фашистами. Ну, да ладно, решил Тихон. Не все ли равно кем воевать...

До самого конца войны он был командиром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орудия. Сколько километров он с ним прошагал! В Карпатах его тяжело ранило в правую грудь. Два месяца харкал кровью в госпитале. Пролежал там четыре месяца. Затем догнал 14-ю Краснознаменную Винницкую гвардейскую артдивизию. Так и не догнал. Попал в 1-ую артдивизию Резерва Глав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Мы сидим в уютной квартире ветерана в Ташкенте. Я разглядываю ег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награды. Тихон Лукич гладит рукой орден Славы III степени.

- В нем жизнь моя уместилась...

Было э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льши. В каком местечке, дай Бог, вспомнить, - бывший фронтвик задумывается. Так и не вспомнил, из памяти выветрилось. Не мудрено, столько времени минуло с того боя.

Но не забылся долгий, гулкой день. Над головой - высокое небо. Справа - лесок. Слева - поле. Грохот от разрывов бомб и снарядов. И орудийный расчет со своей 76-миллиметровкой под ивняком. Два орудия батарей расположились сзади, в метрах двухстах от них.

Вот показались два фашистских танка - один впереди, два немного отстали. Страшно, а не бежешь. И бросить пушку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Томительно, медленно текло время. Первый "тигр" неудержимо рвался прямо на их позицию. Сто пятьдесят метров, сто, девяносто... Отчетливо видны гусеницы. Наводчик навел орудие, прицелился. Тихон посмотрел в окуляр - в

какое-то мгновение танк встал к ним боком.

- Эту минуту я до конца своей жизни не забуду, - рассказывает Тихон Лукич. - Как бы попасть, сооб-

ражал я. Не то будет нам хана...

Младший сержант Цой дернул за веревку. Колеса, пушки поднялись и тут же ударились об землю. Залпа он не расслышал. Танк противника вздрогнул и замер неподвижно. Ну, что там, что?.. Застыли в ожидании и его подчиненные. Неужто промазал, промахнулся?.. И вдруг, из-под брон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 дым, языки огня. И фашисты оттуда выскакивают. А уничтожить их автоматами проще простого. Два "тигра", шедшие на большой скорости, тоже остановились, а затем повернули вспять.

Командир дивизии похвалил Цоя и представил его к ордену Славы.

После Победы дивизия, в которой служил Тихон Лукич, находилась в Австрии.

- Красивый город Вена, - восхищается фронтвик. - С памятниками, со старинными домами. И в метро удалось покататься.

Бойцы, уставшие от боев, отдыхали, ждали демобилизации. Тихон Лукич знал, что в 1943 году умерла Валентина. А где же сын? - беспокоился он.

В начале июня 1945 года младшему сержанту говорят: - Вызывают в Москву, в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 Не может быть, усомнился он. - В Генштабе бывают только высшие офицеры, а я...

Раз вызывают, то не зря. Добрался до Москвы. И отыскал то, нерядовое учреждение. А там его спрашивают: не хотите ли учиться в академии? Высокая честь. Однако такого желания у младшего сержанта не было.

Тогда ему приказывают: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до было подчиниться. В ту пору не было слов "не хочу", "не могу", "не буду". Ты - военный человек. И этим все сказано. Личные интересы - в сторону. Такое было время - суровое, властное.

Прибыл о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снова перед тобой выбор: либо школа воен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либо продолж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Он выбрал второе. Какая разница! Он бил фашистов, опыт у него имеется. Вот объявили войну с Японией... Но, воевать в открытую Тихону Лукичу больше не пришлось.

- В штаб 25-й армии! - такое он получил предписание.

Поскольку война уже шла, штаб нужно было догонять.

Он ехал через Китай, на перекладных, догнал штаб, перейдя границу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огда он увидел перевалы земли своих предков, невольно ахнул. Так вот ты какая, Корея! Его прадед из местечка Харен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Хамген за лучшей жизнью в прошлом столетии отправился в Приморье. Принял там россий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взял себе русское имя Семен, а сына своего нарекал Лукой. Лука впоследствии участвовал в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Любопытно все-таки складывалась жизнь. Правнук простолюдина, покинувшего родину из-за бедности и нужды, вернулся туда освободителем. Как не гордиться!

Его определили в разведотдел штаба 25-й армии, которым руководил полковник Красков.

- О разведке много и не скажешь, - замечает Тихон Лукич. -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конечно, была большая...

Тут и обзор был больше, чем через прорезь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рицел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были весомые...

Тихон Лукич видел ликующие толпы народа, сбросившего с себя ярмо тридцатипятилетнего гнета. Он радовался со своими сородичами, хотя был гражданином и воином другой страны.

Что потом было? Помогал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Корею, работал в Пхеньяне рядовым учителем, снова преподавал математику, заведовал учебной частью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К медал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прибавились и другие награды КНДР.

Отыскался сын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его взяла к себе бабушка, мать покойной жены. Живя в Корею - а он там находился до 1957 года - регулярно отправлял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Володе.

В 1947 году встретил симпатичную девушку Де Эдя, с благословения ее родителей женился на ней.

- Свадьба у нас была скромная, - вспоминает тетушка Эдя. - Не забуду, как нас посадили в легковую машину, как мы обогнули гору Моранбон...

Тот самый Моранбон, где установили памятник советским воинам, где всегда живые цветы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воим освободителям.

По приезде в Узбекистан бывший артиллерист и разведчик осваивал целинные земли "голодной" степи. Володя вскоре отыщет своего отца, сейчас он работает прорабом в Ташкенте. А всего у Тихона Лукича Цоя и Де Эди три сына, две дочери, да восемь внуков. И у них счастливая, завидная старость.

Вячеслав ЛИ  
Фото Виктора АНА

**НАША  
ИСТОРИЯ  
В РИСУНКАХ**

*В сеульском издательстве "Тосо грип мидио" вышла книга рисунков ташкент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Владимира Ана.*

которые несомненно дополняют и украшают издание.

Эта книга о нас. О том, как мы жил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илетий в Приморье и в Средней Азии, как преодолевали трудности, не теряя оптимизма. Книга пока единственная в своем роде. Такой мы еще не видели. Она безусловно несет познавательный заряд для читателей, в особенности, для молодых.

Воспитанник палехской школы, Владимир Ан известен как живописец по лаковой миниатюре. Книга, изданная со вкусом и на высоком полиграфическом уровне, раскрывает одну из граней дарования талантливого художника.

Вячеслав ЛИ  
Фото Виктора АНА



- Манхва - так называется один из популярных жанр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говорит Владимир Сергеевич. - Я использовал его,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о дорогих мне людях -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О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ах автор рассказывает с теплым юмором, с улыбкой. Язык его рисунков трогателен, добр и узнаваем. Он достигает гротеска и сочувствия, когда необходимо поведать о трагическом. Например, об осени 1937 года.

Художник точно, емко и с большой любовью запечатлел предметы быта, характер и душевный облик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Рисунки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поэтичны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NN 19-21, 23-27, 29-31, 33-37)

3.

Джонни кружил по гостинице, словно загнанный в клетку лев. Впервые ему не позволяли делать то, что хочется. Полицейские надежно охраняли двери.

- Я этого не выдержу, - набросился он на Квиста. - Знаешь, мне никогда не приходилось целый день смотреть телевизор. Ты не представляешь, какую они показывают муть.

Квист налил себе бренди, попутно отметив, что Джонни начал вторую бутылку ирландского виски.

- Когда же этот подонок сделает следующий ход? - спросил Джонни.

- Не сегодня. Этим вечером он занят. Ты можешь лечь в кровать с хорошей книгой.

- Ты по-прежнему считаешь, что это Хэдман?

- Да. Вечером у него свидание с Глорией Чард. Держу пари, она заставит его на время забыть о ста тысячах.

Джонни уселся на ручку кресла с полупустым стаканом в одной руке, сигаретой в другой.

- Я тут размышлял на досуге.

- Опасное занятие.

- Если шантажист - Хэдман, то мы идем по следу двоих: Хэдмана и убийцы, - Джонни невесело хохотнул. - Коли убийца доберется до меня первым, Хэдман останется с носом.

- Убийца до тебя не доберется, - возразил Квист, - а вот деньги тебе,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дется отвезти. Одному, без прикрытия Кривича. Выполняя полученные инструкции.

- И прощай сто тысяч.

- Прикрывать будут не тебя, а Хэдмана. Он же вне подозрений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верен, что за ним не следят. А Дэн давно не спускает с него глаз. Мы его поймем, а потом разберемся с алиби.

- Но Мэриан подтвердила его непричастность к убийствам.

- С Мэриан тоже не все чисто. Ты знаешь, Тайлер видел ее фотографию на туалетном столике Беверли Трент.

- Он это говорил? Чепуха.

- Подумай, Джонни. Беверли в твоём присутствии никогда не упоминала о Мэриан Шеер?

- Нет, - Джонни отпил из бокала.

- О своей семье? Матери?

- Я,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этого не помню, - его глаза широко раскрылись. - Мэриан - мать Беверли? - он расхохотался.

- А ты не рассказывал Мэриан о Беверли?

Смех разом прекратился.

- Нет. Наоборот, я хочу, чтобы люди поскорее забыли о нашей связи. Надеюсь, ты меня понимаешь.

Зазвонил телефон. - Постарайтесь удержаться на ногах, - сказала Конни. - Доналд Хирш приехал в "Нотр-Дам" из Сент-Пола.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когда он был еще ребенком, и его воспитывала овдовевшая тетушка. Тетушку звали Огюста Гауптман. Мне продолжать?

- Я догадаюсь сам. У Огюсты Гауптман была дочь по имени Мэриан.

- Bravo! - воскликнула Конни.

Гарви позвонил около семи вечера.

- Я нашел нашего друга.

- Хорошо.

- Он пригласил Глорию во "Времена года". Дешевых ресторанов он не признает.

- Как Джонни? Вы что-то узнали?

- Так, по мелочам. Полиция спешить не любит. Они все проверяют.

- Да, лейтенант Кривич, похоже, знает свое дело, - кивнула Мэриан.

- Он, кстати, все еще занимается Хэдманом.

- Бедный Дуг, - рассмеялась она. - Вы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себе, какое он перенес потрясение. Лейтенант, кстати, заезжал ко мне сегодня, чтобы окончательно убедиться, что Дуг не замешан в этих ужасных убийствах.

- Убедился?

- Конечно. Я назвала ему пять или шесть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видели Дуга в пятницу и

учился в "Нотр-Дам", подумал я, не означает ли это, что он поступил в университет под другой фамилией?

- Мне он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л, - с трудом ответила Мэриан.

- Его реплика о футбольной команде д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что настоящая фамилия Хэдмана - Хирш. Доналд Хирш.

- Впервые об этом слышу.

- В команде "Нотр-Дам" играл Доналд Хирш. Он летал на матч в Калифорнию. Вот я и подумал, не Хэдман ли это. Смена фамилии не является преступлением.

- Он об этом не говорил, - выдохнула Мэриан.

- Доналд Хирш родился в

тожить Джонни Сэндза. Но, к сожалению, и вы играете определенную роль в его планах.

- Я... мне нехорошо. Извините меня, я сейчас приду...

- Звонить Хэдману бесполезно, - холодно бросил Квист. - Этот вечер он проводит с очень милой девушкой из моей конторы. Едва ли он снимет трубку.

Мэриан замерла на пороге, оперлась о косяк двери, обернулась.

- Что вы намерены делать?

- Сначала, если позволите, я хотел бы поговорить с вами. Почему бы вам не присесть?

Ее глаза были полны страха. Нетвердой походкой она прошла к бару, налила бренди, вернулась к креслу.

- Что бы там ни было, Дуг не повинен в убийствах.

- Так вам кажется.

- Неповинен!

- Начнем с того, что я испытываю к вам искреннюю симпатию, Мэриан. Возможно, мне удастся уберечь вас от крупных неприятностей... если вы мне поможете.

- Как?

- Каким образом Доналд Хирш вновь вошел в вашу жизнь? Теперь он стал Дугласом Хэдманом, но в Голливуде его знали как Чифа. Он пытался шантажировать вас, Мэриан?

Она села. Коротко кивнула.

- Он появился за год до смерти Делберта. Длинные волосы, борода, грязные джинсы, рваная рубашка. Служанка хотела выставить его за дверь, но он твердил, что приходится мне родственником. Когда она назвала его имя, мне стало дурно, но я согласилась принять его здесь, в этой комнате. "Не ожидала увидеть меня, Мэриан?" - ухмыльнулся он. Я ответила, что нет. Как оказалось, в Голливуде он столкнулся с девушкой, которую звали Луиза Гауптман. Навел справки. По всему выходило, что Луиза - моя незаконнорожденная дочь. Он сказал, что в Голливуде она стала шлюхой. "Я чувствую, дорогая Мэриан, что твоему мужу не понравятся эти новости. Я могу обратиться в газету, если только..."

Делберт всегда был моралистом и панически боялся скандалов. И я начала выплачивать Дону по пятьсот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Почти год я регулярно высылаю деньги в Голливуд на имя Дэвида Харриса. А потом... потом Делберт умер, и Дон вновь объявился в Нью-Йорке, рассчитывая на крупную поживу. Он принимал меня за богатую вдову. Но ошибся.

- Я знаю об этом, - кивнул Квист.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 Конни узнала в "Нотр-Дам" немало интересного. Этого Доналда Хирша, затем ставшего Чифом, воспитывала тетушка по фамилии Гауптман. Мэриан оказалась ее дочерью, то есть кузиной Хэдмана.

- Ого!

- Не теряй его из виду, Дэниел.

- Можешь не волноваться. В восемь вечера над городом разразилась гроза. Квиста она застала на Восьмидесятой улице. Он едва успел нырнуть под навес небольшого магазинчика. Молнии разрезали почерневшее небо.

На другой стороне улицы светились окна особняка Мэриан Шеер. Гроза кончилась так же быстро, как и началась. Квист пересек мостовую. Открывшая дверь служанка сразу узнала его.

- Я доложу миссис Шеер о вашем приходе.

- Она меня не ждет. Если она занята...

Служанка исчезла за дверью и тут же появилась вновь. Вероятно, она поговорила с хозяйкой по внутреннему телефону.

- Подними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на третий этаж.

Улыбающаяся Мэриан в домашнем платье цвета бордо встретила его у лифта.

- Надеюсь, я не помешал?

- Дорогой Джулиан, я так рада. Проходите. Налить вам бренди или чего-нибудь еще?

- Пожалуйста, бренди.

Мэриан подала ему бокал, предложила сесть в удобное кресло.

субботу. Лейтенант заверил меня, что больше не будет нас беспокоить.

- И все же, - улыбаясь, продолжил Квист, - в истории с Хэдманом остались некоторые неясности.

- Для меня он - открытая книга, - возразила Мэриан.

- Давно вы его знаете?

- Дуга? Четыре или пять лет.

- Как вы с ним познакомились, Мэриан?

Она рассмеялась.

-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помню. Наверное, на какой-то вечеринке. А потом Дуг стал незаменимым помощником. Я отдаю много времен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в Фонде борьбы с респиратор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н так мил, так внимателен.

- Откуда он родом?

- Не знаю. Он учился в "Нотр-Дам". Помнится, он сам говорил вам об этом. Я думаю, Дуг со Среднего Запада, хотя возможно, это и не так. В "Нотр-Дам" приезжают со всей страны.

- Вы удивитесь, услышав, что по полученным из "Нотр-Дам" сведениям Дуглас Хэдман там не учился?

В правой руке Мэриан держала бокал, левая сжала ручку кресла так, что побелели костяшки пальцев.

- Я вам не верю.

- В "Ассошиате" мы привыкли к тому, что люди меняют имена и фамилии. Половина артистов театра и кино известны нам под псевдонимами. Это свойственно и политикам, даже бизнесменам. Раз Дуглас Хэдман не

Сент-Поле, - взгляд Квиста уперся в собеседницу. - Его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и воспитание мальчика взяла на себя тетя, Огюста Гауптман.

Лицо Мэриан побледнело как полотно. Глаза остекленели.

- У миссис Огюсты Гауптман была дочь, которую, по странному совпадению, звали Мэриан. Она вышла замуж за Майка Дэниелса. Он погиб в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е.

- Достаточно! - она поднялась.

- Я не закончил, Мэриан. Скоро этот секрет станет известен всем, так что я могу ввести вас в курс дела. Неприятности Джонни начались из-за девушки, которую звали Беверли Трент. Она покончила с собой пять лет тому назад в доме Джонни. Он и его два друга перевезли тело в ее квартиру. Кто-то узнал об этом и занялся шантажом Джонни.

Мэриан окаменела.

- Я говорил вам, что Беверли Трент - тоже псевдоним? Ее настоящее имя Луиза. Луиза Гауптман.

- О Боже... - донеслось в ответ.

- К вашему сведению, Мэриан, в квартире девушки была фотография в серебряной рамке, ваша фотография.

Мэриан рухнула в кресло. Бокал выскользнул из ее пальцев и покотился по ковру. Она закрыла лицо руками.

- Мне не хотелось беречь старые раны, но я не могу бросить в беде моего друга. Я уверен, что именно Дуглас Хэдман замыслил унич-

# "МОИ ГОДА - МОЕ БОГАТСТВО"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11)

В то время отец работал в артели "Красный транспорт", которая обслуживала госмелиннику "Союзсельхозмука". Так же работали грузчиками молодые мужчины-казахи. Среди них уже были отличившиеся на работе, которым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Ударник". Для ударников была отдельная комната в общей рабочей столовой, где питался отец, как ударник, вместе с казахами. Сначала он их боялся, а потом подружился с ними. Отец часто рассказывал о них, сочувствовал, разделяя их участь переселенцев, не зная о своем будущем. Отец встречался со многими людьм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о таких - встретил впервые.

И вот вторая встреча с казахами спустя 6 лет, в 1937 году, уже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их предков, в Казахстане, на правах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

В 1937 году в селе Дунгановка не было колхоза, а было товарищеское общество земледельцев (ТОЗ). Наш колхоз назывался "Красный Октябрь". В начале 1938 года объединились эти два хозяйства - дунган и корейцев, и создали единый колхоз "Октябрь", который так и называется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первом собрании отца избрали бригадиром комплексной полеводческой бригады. В этой бригаде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дунгане, корейцы и казахи. Учет труда вел он сам. Записывал в тетрадь пофамильно выполненные объемы работ в полеводстве, а потом пересчитывал на трудовые. В этом я был ему неплохим помощником. Каждый вечер, придя с работы, он меня спрашивал, знаю ли я такое-то казахское слово. Я говорил, что нет. Он давал мне задание, чтобы я завтра нашел перевод этого сло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к лету отец уже имел неплохой, самодельный, своего рода "казах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И не раз он мне советовал, чтобы я тоже изучал казахский язык.

Работал он бригадиром до февраля 1942 года, затем его мобилизовали в трудовую армию в Караганду,

где он попал в аварию и вернулся домой инвалидом I группы.

Мать моя награждена орденом "Мать-героиня", медалями "За трудовое отличие", "За доблестный труд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Мать наша родила десять детей - пять сыновей и пять дочерей.

Самый старший - я.  
- Вы и раньше занимались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 Был заместителем секретаря партий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ста "Каратаухимстрой",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партий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треста,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род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К,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сткома профсоюза УМР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стройкома треста.

Начиная с 1948 года, Александр Санхонович семь раз избирался депутатом: Сарысуйского, Курдайского, Коктерекского (ныне Моюнкусского) районных Советов, Фурмановского и Пулатковичского сельсоветов и дважды - Каратау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депутатов трудящихся.

За честный,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Александр Санхонович удостоен ше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награжден грамотами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крайисполкома и Джамбулского облисполкома, имеет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омитета народного контроля Казахской ССР, Джамбулского обкома КПК и облисполкома, Каратауского горкома КПК и горисполкома. В трудовую книгу записано множество поощрений.

- Вы полны энергией, бодростью, жизнерадостностью, оптимизмом, не похожи на пожилого человека.

- В моем понятии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жить активной жизнью, т.е. больше двигаться, заниматьс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езными делами, культурным досугом,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ой, общаться с людьми, - словом всем тем, что полезно для человека. Все эти дела для меня

привычны, а сила привычки сильнее других.

- Александр Санхонович! Вижу у вас много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гармонь, скрипка, гитара, балалайка, Кто на них играет?

- Сам играю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особенно вечерами. Музыка, это тоже такая наука, если не будешь заниматься, то быстро разучишься и пальцы слушаться не будут. Люблю музыку с детства.

Взял он гармонь, заиграл свои любимые песни: корейские, русские, казахские. Он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владеет казахским языком - пишет, читает, разговаривает.

- Когда и как вы научились казахскому языку?

- В 1947 году я с группой зооветспециалистов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боту в Сарысуйский район. Работал в райсельхозотделе старшим зоотехником. В районе делопроизводство велось на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Пришло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зучать язык. Вот тогда-то я и вспомнил своего отца, который заставлял меня искать перевод казахских слов. Особенно было трудно, когда меня в 48-м году избрали секретарем исполкома райсовета депутатов трудящихся. Протоколы, решения, распоряжения райисполкома и ежедневные переписки с аульными Советами, колхозами и друг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елись на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Не хватало слов. Пользовался словарем, газетами, журналами, блокнотами агитатора. Неоценим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и товарищи по работе: Назарбеков Айтбай (зам.пред.райисполкома), Абилов Раш (инструктор райисполкома), Сармолдаев Утебай (зав.отделом культуры), Амиров Дастан (райинспектор ЦСУ), Елобаева Балганым (секретарь-машинистка) и другие. До сих пор в моей памяти осталась эта немолодая, спокойная, симпатичная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всегда старалась чем-то мне помочь. Она, печатая на машинке, молча исправляла мои ошибки. Но однажды все-таки я спросил ее, почему она заменила мое слово другим. Она спокойно объяснила, что так лучше. Тогда я попросил ее, чтобы она 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мнениями. Так мы и работали дружно, плодотворно.

**В.ОБЕРЕМКО**  
Фото автора  
г.Каратау

(Оконча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 БАКЛАЖАНЫ - КАД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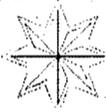
#### САЛАТИ ИЗ ТЯРЕННЫХ БАКЛАЖАНОВ

Это блюдо готовится из молодых баклажанов с приправами. В баклажаны можно добавить столовый уксус (лучше перед самым употреблением блюда).

**Баклажаны - 1 кг, соевый соус - по вкусу, зеленый лук - 30 г, чеснок - 20 г, молотый кунжут - 5 г, красный стручковый перец - 1 шт.**

Молодые баклажаны помыть, отрезать хвостовую часть. Разрезать на 4 части (но не до конца). Пропарить баклажаны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почти сваренного риса. Когда вилка будет свободно входить в плоды, вынуть их, остудить и разорвать на части. Из стручка перца достать семена, можно нарезать и придавить вместе с баклажанами.

Сложить баклажаны в кастрюлю, полить соевым соусом, посыпать нашинкованным луком, раздавленным чесноком, молотым кунжутом.



## АСТРОЛОГИЯ

НА 23 СЕНТЯБРЯ - 6 ОКТЯБРЯ

**ОВЕН** (14 апреля-13 мая) берет на себя серьез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талкиваясь с самыми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Ваш авторитет на работе растет, обращения к вышестоящим будут удачны.

**ТЕЛЕЦ** (14 мая-13 июня) творчески подходит к своему делу, но практичес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ждать рановато. Судьба может улыбнуться вам в личных делах, особенно семейных, но увлекаться праздниками не стоит.

**БЛИЗНЕЦЫ** (14 июня-15 июля) могут быть втянуты в неприятные скандалы в доме, но семейные проблемы удастся разрешить.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ывать следует с большой осторожностью. На второй неделе дела на работе пойдут успешно.

**РАК** (16 июля-15 августа) получает множество полезных встреч и информации. Давние намерения могут исполниться. Никто не препятствует свободному отношению к работе и развлечениям.

**ЛЕВ** (16 августа-15 сентября) может ощутить интерес к своей персоне со стороны обеспеченных людей.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предложения и возможности, энергии и денег на все хватает. Время великолепно для накопления сил и занятий своим внешним видом.

**ДЕВА** (16 сентября-16 октября) раздраж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обеспечивать домашних. Все ее внимание приковано к собственным проблемам и своей личности. Но общение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проходит очень успешно и даже приятно.

**ВЕСЫ** (17 октября-15 ноября) разрешают свои проблемы в отношениях с любимыми и детьми. Любой итог в этом для вас положительный. Тай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успешно.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невидимая поддержка и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

**СКОРПИОН** (16 ноября-14 декабря) вспоминает, что новое - это хорошо забытое старое, и извлекает из этого серьезную помощь. Приходит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от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Личная жизнь весьма удачна, но финансы следует очень поберечь.

**СТРЕЛЕЦ** (15 декабря-13 января)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оригинальным идеям выпутывается из любых ситуаций. Карьера успешно продвигается, и тайные дела удаются. Отношения с близкими людьми получают новую и самую лучшую форму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КОЗЕРОГ** (14 января-12 февраля) может устроить себе весьма приятный отдых. Постоянно приходят мысли о браке, о детях и о семье вообще. Улучшить настроение с помощью бутылки не удастся.

**ВОДОЛЕЙ** (13 февраля-13 марта) не должен избегать общения, оно будет очень полезно. Ваши отношения с людьми очищаются, все союзы испытываются на прочность.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дела с родителями супруг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ризисы успешно разрешаются.

**РЫБЫ** (14 марта-13 апреля) укрепляют свой авторитет в обществе и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очень уверенно. Хорошее время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занятий с детьми и даже для любви.

**Вл. АЛЕКСЕЕВ**

## ИЗБР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15 сентября состоялось общее собрание членов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еред началом обсуждения повестки дня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почтил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амять безвременно ушедшего из жизни бывш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центра Михаила Васильевича Хвана.

Собрание единогласно избрал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лмат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

ра Афанасия Григорьевича Кима. Вырази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высокое доверие собранию, А.Г.Ким посвятил часть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памяти М.В.Хвана, отметив его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создание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особенно в период становления движения за возр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быта и традиций. Как программные задачи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центра

А.Г.Ким определил продолжение консолид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оздание прочн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помощь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енсионерам и инвалидам,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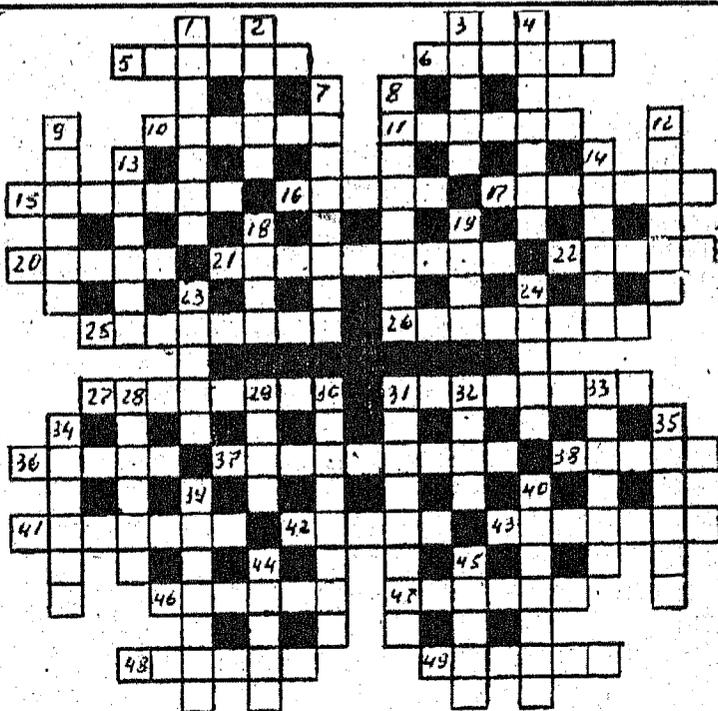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биографией 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Афанасия Григорьевича Кима можно в статье "В друзьях у замминистра давняя команда", "Коре ильбо" N37 (464) от 16.09.95г., стр.11.

**БЯ ГЕН И.**

## КРОССВОРД

### ОТВЕТЫ НА КРОССВОРД, НАПЕЧАТАННЫЙ В N37

- 1.Моцарт. 2.Туманов.
- 3.Вальс. 4.Соло. 5.Ойстрах.
- 6.Хачатурян. 7.Нота.
- 8.Алябьев. 9.Вагнер. 10.Рубинштейн. 11.Новиков.
- 12.Верди. 13."Иоланта".
- 14.Адажио. 15.Орган.
- 16.Ноктюрн. 17.Направник.
- 18.Книппер. 19.Русланова. 20.Александров.
- 21.Вивальди. 22.Интервал.
- 23.Лиллиа. 24.Архипова.
- 25.Арфа. 26."Анда".
- 27.Аллегро.



**ПО ГОРИЗОНТАЛИ:** 5.Адмирал,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втор трудов "Приморские крепости". 6.Инструмент, применяемый при рубке металлов. 10. Роман О.Гончара. 11.Уругвайский писатель. 15.Предвидение, предсказание. 16.Прямая, соединяющая две точки кривой линии окружности. 17.Травянистое растение со сладковатым корнем. 20.Единица веса, применяемая в ювелирном деле. 21. Искусственное орошение безводных земель. 22.Напевы альпийских горцев. 25.Беспокойная торопливость в действии. 26.Судно, работающее на ядерной прочности. 36.Ремень со скользкой петлей для ловли животных. 37.Заносчивость, чванство. 38.Нижняя точка пересечения с небесной сферой. 41.Другое название рыбы хек. 42.Рыба семейства кефалей. 43.Название золотых монет достоинством в 5 и 10 рублей. 46. Нелегальная большевистская газета, издаваема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 редакцией В.И.Ленина. 47.Город в Львовской области. 48.Столица Армении. 49.Небольшой залив в реке с замедленным течением.

**ПО ВЕРТИКАЛИ:** 1.Казахский композитор, автор кантаты "Песнь акына". 2.Возвышенность в центре Молдавии. 3.Часть механизма в огнестрельном оружии. 4.Соединение кремня с углеродом. 7.Бело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массовая песня и танец. 8.Древнее название области на северо-западе Пакистана. 9.Венгерский народный танец. 12.Персонаж повести Н.Гоголя "Ночь перед Рождеством". 13.Водопад в Бразилии на одноименной реке. 14.Благородный металл. 18.Музы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из трех исполнителей. 19.Персонаж романа А.Дюма "Графиня де Монсоро". 23.Сложноузорчатая ткань. 24.Советский конструктор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28.Героиня повести А.Грина "Алые паруса". 29.Лагерь, место стоянки. 30.Змея. 31.Советский скульптор, автор памятника Х.Абовяну в Ереване. 32.Травянистое растение семейства зонтичных, применяют семена в медицине и как пряность в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33.Советский художник-плакатист, заслуженный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 России, автор серии плакатов "В.И.Ленин". 34.Проводник, заключенный в защитную оболочку. 35.Парнокопытное животное рода лам. 39.Насыщенный алифатический углеводород, выделяется из газов пиролиза,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40.Греческий поэт. 44.Знаменитая московская улица. 45.Религиозная книга у мусульман.

27 СЕНТЯБРЯ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ТУРИЗМА

НОВОСТИ КОРЕИ

# ЛОЖЬ, ЧТО УМНЫЙ В ГОРЫ НЕ ПОЙДЕТ



*У него очень редкая профессия. Зубошлифовальщиком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авят того, кто известен золотыми руками, светлой головой и опытом работы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всех станках. Однако познакомились мы с ним в горном ущелье. В хорошей компании шли по тропам к перевалу Лесному, чаевничали на привале, сидели у костра. Возможно поэтому и случился потом наш длинный разговор с Федором Алексеевичем Хваном.*

**- О таких, как вы, говорят - с пеленок в горах. Верно?**

- Родился-то я в Талды-Курганской области. Сюда приехал после школы, в 68-м. Вышел на вокзал, глянул - а на горизонте цепью горные вершины в снежных шапках. И все. Тормошу каждый день родню, пойдемте в горы, рядом же! Да, они далеко. Ну и что, хоть к подножию. Так и не вытаскил. Уже потом, в общежитии завода имени Кирова, на который устроился работать, встретил Володю Калинина, горного человека.

**- Часто самый первый поход всю жизнь помнишь.**

- Во, и у меня так. Володя понял мою страсть. Мы отправились сразу на космостанцию, да в лоб, по горе.

**- Знаю, маршрутчик ничего себе, километров 14 в один конец, без тропы.**

- Он про себя решил, что я быстро выдохнусь и мы повернем. А я отдышусь и дальше: "Идем до снега". Словно какая-то сила меня тянет. Уже я мокрый, каждый мускул дрожит, припасы володины давно кончились. Наконец, вершина, и снег, вот он - карнизам свисает. Я потрясен, зенит лета, жара, а я делаю снежки, снегом обтираюсь. Высота где-то 3,300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А как дышится, какие дали открылись!

**- Горы стали частью жизни?**

- Если бы не они, я из Алматы уехал бы, поводы были. Но с завода в армию ушел, сюда же вернулся, институт заочно окончил. Работа, конечно, без нее нельзя. Но на свете стоит жить, чтобы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открывать новое. Все горы вокруг облезли и по хребтам и по ущельям. На Иссык-Куль по всем тропам ходил.

**- Что это, по-вашему, болезнь, или стече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когда иной человек без гор просто не может?**

- Я думаю, каждому дана своя страсть, одному - рыбалка, другому - лес, поле. А тут - залезть на гору, что за ней?

**- А как вы смотрите на тех, кто видит и использует практическую сторону гор. Слишком меркантильны?**

- Пусть пользуются. Горы и это нам дарят: ягоды, грибы, фрукты. Можно столько на зиму наготовить. И я стараюсь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Нынче какой урожай малины, урюка, яблок. Я как-то не успел, Барбарис еще не поздно, постараюсь собрать. И все бесплатно, только ак-

куратными надо быть, чтобы и потом растения жили и нас кормили. А сколько алматинцев природы не видят, все по домам, по телевизорам.

**- Ленивы мы и не любопытны, заметил о своем народе когда-то Пушкин. Но я за вашей дочкой Светой с радостью наблюдала в походе. Как она легко и естественно себя ощущает в горах.**

- С трех лет стал ее брать. Мы разошлись с супругой, взялся дочку сам воспитывать, больная была. Искал, как здоровой ее сделать. На Медео привезу, и вверх на плотину. Там она у меня поспит, подкрепится и вниз. Сначала носил, потом сообразил: здоровье дают не только воздух, высота, но и ходьба, движение. Постепенно приучил. Теперь, если один в горы уйду, выговор получаю. К лыжам мы с ней приобщились, зимой по склонам катаемся. Однако от гор польза человеку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ая. Душа развивается, наращивает добродетельность, коллективизм, сострадание. Не посмеет тот, кто горы любит, ветку дерева сломить, лопух уничтожить. Все вокруг живое, всем больно. У меня один принцип: стресс пережил, заболел, на работе вымотался, - сходи в горы, воспрянешь. Я после гор испытываю приподнятость, выделяю главные дела, а мелочи отходят в сторону.

**- Но ведь есть фанатики, не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среди скал навсегда.**

- Кто, знаменитости? Англичанин Хиллари со своей прекрасной книгой про Гималаи? Японец Эмура, покоривший все полюса земли? Да, они там погибли, но для нас остались живой вдохновляющей легендой. Другое дело - люди легкомысленные, кому море по колено. Встречаем траурные таблички на камнях, у тропы на Кок-джайлау крест стоит. С горами лучше обращаться уважительно: остерегаться лавин, не быть слишком рискованным, не брать спиртного, знать, где развести костер и разные другие правила.

**- Слушаю вас, вы, наверное, счастливый человек, ни о чем не жалеете?**

- Больше всего жалею, что был слишком законопослушны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твердила - работай, отдавай все заводу и все у тебя будет. Не захотел в инженерах остаться, вернулся в станочки, денежнее, а, главное, пользы больше. И в результате остался ни с чем. Даже квартиры не получил,

приобрел кооперативную, никуда, кроме командировок, не ездил. Больше, чем за четверть века завод из меня все выжал. Спасибо горам, а то и сил бы уже не было. Да еще читал много, люблю читать. А мечты так и остались мечтами.

**- Хочется где-то побывать?**

- Здесь уже все знакомо, а вот Красноярские столбы, Саяны, Байкал...

**- Вам жалко, Федор Алексеевич, тех, кто горы не любит?**

-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да. Стараться людей вытаскивать, пусть больше их горным воздухом подышит, красотой полюбуется, от суевты отдохнет. Но такой парадокс получается. Чем больше людей ходит в горы, тем больше пожаров, больше мусора там остается. Уже не говорю об ущельях, сколько ледников, высокогорных озер забросали жестяными банками, стеклом, полиэтиленом. А как все это чистить? Мировая проблема. И у нас уже появляются энтузиасты, которые совмещают походы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льзой, собирают и уносят вниз с собой чужой мусор. А вот если бы все взяли! Не сил, культуры не хватает.

**- Небось горные песни бардов все распевают.**

- Вот именно.

**- А вы кого из них любите?**

- Многие. И Юрия Визбора, и других. Высоцкого больше всего, много у не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Ложь, что умный в горы не пойдет, ты пошел, ты не поверил слухам. И мягчал гранит, и таял лед, и туман у ног стелился пухом.*

Или: *Изведать то, чего не ведал сроду, глазами, ротом и кожей пить простор...*

*Кто в океане видит только воду, Тот на земле не замечает гор.*

Федора Алексеевича будто проввало, он читал и читал. Потом замолчал.

**- Вы в тот раз интересную фразу обронили: горы - это философия.**

- А как же. Связь прямая. Возьмем Николая Рериха, надо очень верить в божественный идеал, чтобы так писать горы.

**- Вы, я знаю, в церковь стали ходить.**

- Хожу, уже с год. Хочется в Израиле побывать. Тем более, знакомый приглашал. По тем бы горам походить. Святые места.

Светлана ЛОСУКОВА  
Фото Виктора АНА

НОВОСТИ КУЛЬТУРЫ

## КРАСОТА - ВРЕМЕН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В Централь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емипалатинска открыта тематическая экспозиция живописных работ художника Михаила Беляева. "Красота связывает времена" - таково творческое кредо мастера, которому нынче исполнилось 70 лет. В каждом полотне живописные уголки, переулк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на Иртыше, его старое и новое лицо.

Иной почерк у Елены Воробьевой, с творчеством которой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 столичной галерее "Улар". Живопись ее с предельно простыми сюжетами тяготеет к тревожным настроениям вечерних сумерек, графика же создана при ясном свете, как спокойная свобода души среди мирских неприятностей. И все та же, вечная тема - пронзительная красота мира, создаваемая кистью и пером.

## МОДЫ И МИР

Моды и мирный процесс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шли рука об руку на прошедшем в Израиле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м показе "Мир моды приветствует мир",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звестнейшие модельеры 17 стран.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яли коллекции французские, итальянские Дома мод.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находились и такие известные мастера как Валентин Юдашкин из России и Ким Ионг Джо из Кореи и многие израильские модельеры.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символом в разнообразнейших моделях оказалась, конечно же, голубка: как аппликация она украшала лиф платья или имитировала застежку, брошь, а на одной из юбок ворковали живые голуби.

## МИННЫЕ ПОЛЯ КАМБОДЖИ

Четверть века Камбоджа была полем боя. Сначала война в Индокитае втянула ее в свою орбиту, затем - длительная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правление кровавого Пол Пота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Спорадические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роисходят и сегодня. И за все эти долгие годы поля и нагорья Камбоджи различны военные группировки начиняли минами.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оставленных в земле мин превышает 10 миллионов. На каждого камбоджийца - по мин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Камбодже принадлежит страшный мировой рекорд - на мине подорвался каждый трехсотый камбоджиец. По свидетельству ООН большинство всех пострадавших женщины и дети. Противопехотные мины, а они составляют основную массу смертоносного "клада", калечат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поля, пасущих скот, собирающих для пропитания съедобные ягоды и растения, заготавливающих дрова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ищи и постройки жилищ.

Каждая из противоборствующих сторон продолжает миниро-

вать огромные площади, стараясь сохранить свой контроль над территорией. Сейчас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2-х тысяч минных полей, на площади в 3,5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километров. И хотя сегодня разминированием занимаются неск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жертвы минных взрывов продолжают пополнять списки убитых и покалеченных. Пока удалось составить карты минных полей лишь на площади в 47 кв.км, а разминировать - 13 кв.км.

В июне 1995 года в столице Камбоджи Пном-Пен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запрещен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противопехотных мин. Следом, подоб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стоялась в Женеве, но Италия, Франция и Китай, наиболее интенсивно производящие противопехотные мины, на ней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облема опасной начинки минами остается неразрешимой пока не будет приня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запрет на их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продажу третьим странам.

Геннадий КРЕМНЕВ.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Казахстана, редак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Совет фонда "Тесен" выражают глубокое соболезнование и сочувствие президенту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Казахстана, члену общественной редколлегии "Коре ильбо" господину Яну Леониду Константиновичу по поводу кончины его матери ПАК ДЕН АЙ.

주필 양원식.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Ян Вон Сик

편집위원회: Редак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안재길 (부주필), Ан Дя Гир (зам. гл редактора), 김보리스 (로문판부장), Ким Борис (редактор по русск. полосе), 김성조 (편집국장) Ким Сен Де (отв. секретарь).

발행인: 카자흐스탄공화국 출판및대중보도성, 고려일보사집단.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 734  
Учред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ечати и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К и трудовой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전화: 33-90-10. приемная  
Телефоны: 편집부 33-22-71 секретариат  
서한부 33-20-57 отдел писем

480044, 알마티시, 지베코 줄크의, 50  
480044, Алматы, пр. Жибек Жолы, 50  
Заказ 10243 Индекс 65363  
Тираж 3030 экз.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материалы не всегда отражают точку зрения редакции. Присланные рукописи и фотографи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